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24호 2012년 12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 snuausa@yahoo.com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해마다 12월은 각 지역 동창회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로 분주한 날의 연속이다. 사건의 원초는 12월 8일 남가주 '작가의 집'에서 열린 권익연대의 '해결안서' 정경이다. 오후 4시30분 이날 이철영 등문인 4인이 특단의 주령임의 시인들과 사회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특별 강연을 하는 모습이다.

(이규용·의대) 학부부터 2012년을 신임생 새내기까지 함께 이루어진 즐거움과 파리가 왔다는 소문이다.

▶북가주 동창회(회장 이장우·문리대 72)는 지난 15일 케슬스-론리드 클럽에서 10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가주 동창회는 지난 한 해 각종 교양 강연 프로그램과 유명 동문회가 차츰 전시회를 비롯한 많은 이벤트를 개최했다.

▶중부 텍사스 동창회(회장 이영재·사대 59)·송년회 대신 1월 19일 정기 총회를 겸한 작은 규모의 송년회를 개최하는 신년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기 총회에서는 새로운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창재 회장은 "별 일이 없는 한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근(법대 78) 동문아 다음 회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계 계속> 편집주간

이달의 초대작
LA미대 동창회왕
홍신애 동문...15면

각 지역 동창회 송년회

“임진년 흑룡의 해여, Adieu!”

송구영신... 한 해 돌아보고 새해 각오 다져

‘흑룡의 해’인 임진년(壬辰年) 한 해가 저물다. 이제 내년은 ‘범의 해’인 계사년(癸巳年)이다.

각 지역 동창회에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송구영신(送舊迎新)’ ... , 송년회로 분주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연말 일정으로 분주한 송년회 대신 2013년 새해를 맞아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신년회와 준비하고 있다.

각 지역 동창회 송년회와 신년회 계획을 알아보았다.

▶서키고 동창회(신임회장 한의일·공대 62)는 미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인 11월 25일 Oak Brook의 Druly Lane Terrace에서 10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 겸 송년회를 열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이날 송년회에서는 2013년도 신임회장과 임원에 대한 선출, 우리 인식이 결집되었다. 신임 회장으로는 한의일 동문아, 부회장으로는 김보현(상대 60) 동문아 선출됐다.

▶뉴일랜드 동창회(회장 정선주·간호 68)는 지난 12월 1일 Auditorium at Avalon, Lexington Hills 에서 5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파티를 개최했다.

장학생 선발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와 열고 동문과 가족은 물론 동포사회를 위해 내년에는 보다 더 보람있는 행사를 개발 할 것을 다짐했다.

▶남가주= 지난 8일 LA ‘작가의 집’에서 ‘권익연대 해관장

서’를 시작으로 ‘함상단-공대-상대-유대-문리대를 비롯한 각 단과대학별 송년회가 따로 따로 열렸다.

남가주 권익연대는 이철영 동문의 ‘북한 방문’에 대한 특별 토론회와 북한 사회상을 담은 영상 강연을 실시했다.

또한 2013년 신임 연대장으로 선출된(사대 81·변호사)문문은 선출됐다.

▶북가주 동창회(회장 서치원)는 이같은 송년회 대신 해마다 2월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신년회를 열어 한 해의 동창회 행사 계획을 실행해나가고 있다.

▶뉴욕 동창회(회장 김성수·약대 64)는 지난 9일 버러셔에서 위치한 대동문회관에서 20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파티를 열었다.

또한 1935년 임학의 회고 원로

파악자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이 상을 받았다.

‘글로벌 어워드’는 2년에 한 차례 전 세계를 통틀어 관련된 학계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업적을 남긴 원로 학자들이 주는 상이다.

이창진 박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물질 누출 사태 이후 국제 학술행재에서도 한반도 주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특히 앞으로 북핵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격려의 의미도 커 감사할 따름”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행의 측은 “이창진 박사가 한국의 원자력 기술개발 초창기인 1970년대부터 원자력 기술수출국으로 부상하기까지 학술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한국과 미국 등 국제 원자력계에서도 왕성한 학술 활동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모교 공대 전기공학파를 졸업하고 원자력연구소(현 한국 원자력연구원) 연구원, 원자로개발부장, 연구원장 등을 거친 한국 원자력학회와 11대 회장과 원자력위원회의 위원 등 세계 원자력학의 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이 박사는 KEPCO(전력산업기술기공)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원자력연구원총원(산학협력) 위장으로 임명된 후진들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연계 계속>

한국 원자력진흥원 회장 이창진 박사

INSC ‘글로벌 어워드’ 수상



한국의 원자력 분야 원로 학자인 이창진(공대 54출·사진) 박사가 국제 원자력학의 협회(INSC)가 수여하는 ‘글로벌 어워드’를 받았다.

INSC는 미국·일본·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원자력 학회 회원국으로 지난 1990년 미국에서 출범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원자력과 핵발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진 박사는 지난 11월 1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이 단체의 연례 ‘글로벌 리더십 리셉션’에서 100여 명의 동료

과 학자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이 상을 받았다.

‘글로벌 어워드’는 2년에 한 차례 전 세계를 통틀어 관련된 학계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업적을 남긴 원로 학자들이 주는 상이다.

이창진 박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물질 누출 사태 이후 국제 학술행재에서도 한반도 주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특히 앞으로 북핵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격려의 의미도 커 감사할 따름”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행의 측은 “이창진 박사가 한국의 원자력 기술개발 초창기인 1970년대부터 원자력 기술수출국으로 부상하기까지 학술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90248**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모교 법대 2018년 폐지, 역사 속으로

‘로스쿨 도입’에 따라 학부 2017년까지만 유지...재학생들에게 공지...

국내 최고 학부의 위상을 저할까 우려된 법대는 최근 재학생들에게 ‘2017년은 마지막 모교 법과대학이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11월 모교 법과대학 당국에 따르면 법대는 최근 재학생들에게 ‘2017년은 마지막 모교 법과대학 조직과 명칭을 폐기한다’고 e메일과 우편 등으로 공지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모교가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개편해 더이상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 과정을 따로 들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졸 지난 2008년 마지막으로 입학한 법대 신입생이 졸업하는 기간을 유지 2012년까지만 조직과 명칭을 유지하기로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나 휴학 등의 문제로 졸업이 늦어져 학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 시한을 2017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18년도부터 서울대에서 법대의 조직과 명칭은 모두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만 남겨져 법학 관련 학부 수업도 개설되지 않을 전망이다.

모교 법대 재학생 교류 부장장은 “이미 모두 알려진 사실이지만 재학생들이 졸업 시 등 수업을 이에 맞춰 관심을 두고 준비

←한국의 술한 인지는 물론 법조계 인사들의 대부분을 배출해 온 모교 법과대학이 로스쿨 도입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진은 모교 법과대학의 홍보 페이지 중 일부이다.

할 수 있도록 조직과 명칭 폐기 시기를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미 예정된 절차였지만 학교 측의 공식적인 공지를 받은 재학생들은 물론, 졸업생들도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모교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법대 폐지에 대한 소회를 담은 글과 이에 공감하는 재학생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에 있다는 졸업생은 “‘모교와 그 건물을 아끼고 싶네’, ‘그 로스쿨은 잘 계신다’며 아쉬움을 나타내 후배들이 어찌는 없어진다는 생각이 마음 어찌는 없겠다”며 “로스쿨 학생들도 있었지만 나와는 크게 연결고리가 없어 후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판사라는 졸업생 김모(32)씨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흥분했던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정들었던 모교가 사라지게 된다는 아쉽다”면서 “이제는 로스쿨 학생들이 서울대 법대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James Madison Univ. 윤상영 교수

대학 첫 더블 풀브라이트 스칼라 선정

James Madison University의 미래 윤상영(미대 83) 교수(그레픽 디자인학과, 사진기) 2013년 Fulbright Scholar 수혜자로 선정됐다.

윤상영 교수는 이번 선정은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풀브라이트 스칼라로 선정된 것이다.

이해 따라 윤상영 교수는 내년 3월부터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10개월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윤상영 교수는 이미 지난 2007~2008년 풀브라이트 스칼라에 선정되고 그 해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한국의 흥덕대 미대에서 강의한 바 있다.

윤 교수는 James Madison University에서 두 번의 Fulbright Scholar 기금을 수여 받은 최초의 교수로 알려져 있다. 이 대학 홈페이지의 Main Headline에 사진과 함께 자서하게 소개가 됐다.

James Madison University 측은 ‘윤상영 교수와 우리 대학의 캠퍼스에서 처음으로 Double Fulbright Scholar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미국에 있는 국제 교육 장과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공한 뒤 미국 유학을 고려하며 현재 이 대학에서 응용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윤상영 교수는 모교 미대에서도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James Madison University 미대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윤상영 교수는 “나의 미술 작업과 이 학교 학생들의 작품들을 한 자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다시 미국에 오는 후에는 제임스 매디슨 대학의 학생들에게 한국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부가 주관하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교육과 연구의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1946년 창설됐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과 교수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의 학자와 대학원생들의 연구와 합력을 바탕으로 기금을 수여하는 장학금이 있는 국제 교육 장학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창근 박사가 INCOE(국제 전자 국립회)로부터 ‘Global Award’를 받은 뒤 동료 과학자 및 인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창근 박사 ‘글로벌 어워드 수상’ 계속

‘글로벌 어워드(Global Award)’는 국제 전자학회(IAEA) 사무총장을 지낸 한스 할트스, 일본 공학계의 첫 이공계 총장으로 일본 원자력계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진 지은 무카이보 다카시 교수 등이 수상한 바 있다.***

11월 12일 ‘기타 계속’...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황은선) 6월 7일 12월 30일 송년회 열었다.

▶리틀랜드 동창회(회장 구영순) 2012년 12월 8일 Kansas의 Overland Park에 있는 장영성(농대 83) 동문의 자택에서 30명 넘는 동문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연말 모임이 열렸다.

동문의 자택에서 열린 송년회 이라는 이날 모두들 친가족 같은 분위기가 돋보이는 소식이다.

정말 좋은 미국에 온 뒤 다시 조국대학을 마치 현재는 Dan-

list로서 개막하고 있다. 이날 도연인(사회과대 83) 동문은 생활동의를 제하고 나와 이기달은 동문들의 관심과 귀여운 응접자가 됐다.

▶백파부 동창회(회장 이광호) 6월 27일 지난 9월 North Road, Coquitlam, B.C.에 위치한 Best Western Hotel에서 5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 열었다.

▶워싱턴주 동창회(신임회장 김두용) 6월 6일 지난 12월 8일 Velleue의 Down Town에 소지한

Ibwt Hotel에서 연말 총회 겸 송년회를 열었다.

8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새로운 회장장과 임원진출 선출을 이뤄인사를 가졌다.

총회후 열린 연휴기간에는 젊은 학번의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Pgy의 발흥을 우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는 소식이다.

특히 이들은 각자 교유의 분장을 하고 나와 이색적인 분위기를 마음껏 피식했다고 한다.***

시사만평 박준침(인문대 79·번호사)

서울대 인문정보 연구소에서는



슬로운 제도 현저에서 언어 표기를 한글로 가르친다.

<p>차 례</p> <p>3. 시진핑의 중국과 개혁 드라마/메이조 4. 김희철의 1987년 5월 16일 단상 5. 김희철의 'Am Beyond' 연극 불꽃 6. 최기하 생신은 아너스? 그가 바로 저리 이렇게 힐끔힐끔/ 크리스마스 아침에</p>	<p>7. <관객대응제기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예뵈들의 일본은 평평함의 지구 8. <관객대응제기>를 수 없는 평평함의 지구 9. <관객대응제기>를 수 없는 평평함의 지구 10. <관객대응제기>를 수 없는 평평함의 지구</p>	<p>11-14. 미래 동문동성 15. 이달의 초대사수사 미래대학 흥선 16-18. 미주지역 동창회 소식 19. <이학원>을 통해 읽은 동문서로 20. <이학원>을 통해 읽은 동문서로 21. <이학원>을 통해 읽은 동문서로 22. <이학원>을 통해 읽은 동문서로</p>	<p>생존전략 23. 모교 교수와 안테나드 총장 24. <중국 비즈뉴스> 발간기념대회 25. <중국 동문 동성 26. 동창회, 각종 후원금 명목 27. <중국 동문 동성 28. 동창회, 각종 후원금 명목 29. <중국 동문 동성 30. 동창회, 각종 후원금 명목 31. <중국 동문 동성 32. <중국 동문 동성 33. <중국 동문 동성</p>
--	---	--	--

시사 칼럼

시진핑의 중국과 개혁 드라이브



백은(백대 58)
미 노동청 선임 컨설턴트
미주 동창회 부회장

중국과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회의(11월 14일 베이징)에서 11월 15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당 서기로서 중국 공산당 위원회 주석으로 추대됨으로써 실질적인 중국의 지도자로 등장하였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 회의에서 시진핑이 당 서적으로 추대되면 그 때는 명실공히 중국의 당·군·경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실질적인 중국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특히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관계에 있어서 과연 어떤 변화와 진전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논의가 국제 정치계에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을 사실로 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 무엇보다도 세계가 관심의 중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동승승-정경민-후진타오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경제 개혁과 시진핑에 이르러 진행된 의미의 정치개혁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질문과 바람이다. 후진타오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당중앙위원회 회의의 개막

연설에서 개혁에 관한 그의 주장을 강조한 바 있다. 신화통신에 의하면 그는 연설에서 시진핑은 '신도 개혁을 86 번 사용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개혁'을 2 번,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을 5 번 인용한 것은 중국이 경제개혁에 있어 정치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1970년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담당하게 받아들이는 경제개혁을 통하여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지를 새로운 지도자가 현실정치가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일지는 정치개혁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계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워싱턴 DC, 중국 전문가들과 의견과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쪽은 앞으로 시진핑의 중국이 일관적 개혁의 길에 대한 진정성이 다분하고 강하다고 보며, 다른 쪽은 시진핑의 중국은 사실상 시진핑의 개인적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을 우선으로 보며, 후진타오의 정치는 '정치구호의 개혁이 중국의 전체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때는 정치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개혁 세력들은 결코 부속해석하는 언덕과 야 역설했다. 이것은 시진핑의 중국이 나라 갈 정치개혁의 핵심 의사의 민주주의 정치체로 추구되고 있는 다당제 정치체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공산당 일당 정치체로 그대로 유지하고 강하게 면서 시진핑의 내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117년의 탄상

박시룡(농대 71)
서울 동창회부 회장

10월 15일은 모교의 개교 기념일이다. 국립대학교로 출범한 1946년을 기준으로 하면 66주년이지만 개혁 이전인 1895년 설립된 117주년이다. 서울대가 100년이 되는 해에 가장 격조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임팩트 총동창회장이 중심이 된 역대 총동창회와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 추진해온 '서울대 푸른 숲'이 노력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외 유수 대학들의 사례, 각종 전문가들의 고충과 증언을 통해 서울대 2010년 10월 15일 개교 117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가 설립된 1895

년을 기원 헌원으로 삼기로 의결하고 서울대는 역사 일천한 신성대학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버드대-옥스퍼드대 등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대학들은 미치지 못하지만 대다수 세계 유망 대학들이 그렇듯 난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역사는 축적되고 전승되어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한 세대가 지나면 긴 여정은 서울대, 서울대학교의 공지와 자부심이 스스로를 괴멸하여 시대를 뛰어넘을 존재가 될 것이다. 117년은 117년이라는 숫자로는 2012년 말 말인바 성사 조 자원의 힘을 통해 세계 유망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갖기 마련했고, 올해는 융합형 강학체로 변질할 위험이 있다. 시진핑의 개혁이 이차 세력생산을 위한 논반은

게이츠 저커버그가 나오려면?



서원용(공대 74)
서울대 공대 교수

지난 8월까지 하버드 대에 방문 교수로 가서 1년을 지냈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은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 현직 회장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기증했다.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 그곳에서 공부한다. 세계적인 학식을 많이 배운 한 해에도 대학도 게이츠와 저커버그 대를 대해서는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 않았다. 추수상자로 미국 1위의 부자가 된 게이츠와 나이 20대이면 부자가 된 저커버그 미국 경제 제재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상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각각 3학년과 2학년 때 하버드 대학을 휴학했다. 그곳 대학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전 우리 한국의 또 대통령 후보는 "재벌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가 안 나온다"는 오지의 말을 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경제 민주화'가 모두의 화두인 것을 생각하면 똑같은 말을 다른 후

보가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수성가한 1등 부자가 생긴다는 현실 제 현실들이 야기되고 있는 기특독자의 논변이 많이 수려해 보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 '재벌 때문'이라는 원인은 틀리지 않다. 우선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는 자본집중적 산업이 아니라 때때로 대기업의 영향력이 때때로 작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이츠와 저커버그는 매우 잘 준비되고 소위 부유한 계층이었다. 게이츠 경우 하버드 때부터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배웠고, 교과 때 과학과 동등한 분 석기를 개발해 팔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게이츠는 하버드 3학년 때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고 그곳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 학업을 휴학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된 것이다. 그 또한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의 부단하게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 학생이었던 것이다. 게이츠와 저커버그는 연구하는 시기 수련(修鍊)을 연습하게 한다.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가능성의 세계가 정경민(이화영) 같은 학생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한다. 게이츠와 저커버그의 성공 뒤에는 평등한 기회와 포기가 있었다.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가능성의 세계가 정경민(이화영) 같은 학생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한다. 게이츠와 저커버그의 성공 뒤에는 평등한 기회와 포기가 있었다.

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앞으로도 도입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셋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개혁 사항이 바로 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과 재산공개다.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는 오래 전부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직접 조사한 내각부총리 조지 지다와 사회인정부를 조지 담당장관이던 리원차오 등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것은 시진핑의 중국의 정치개혁에 이 방향대로 갖 것인가를 예견하게 해 주는 것이다. 둘째, 시진핑의 중국이 서양식 다수당 정치체로 변형하지 않더라도 하버드도 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이다. 국가적 의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나는, 사법제도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인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당은 사법제 재벌 제도도 공산당의 권력 장악에 사용했었다. 국가적 의의의 직접적인 실행을 위해, 특히 고위 관료들의 사법제 재벌 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사법제 재벌 제도에 어느 정도의 독립권을 부여할 개혁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셋째, 정권 교체 지도자 선출에 정권교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산당 지도자들의 선출은 거의 지명제도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공산당 통치체제이다. 후보자

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하버드대 1학년 때 멋진 학생을 후보로 찾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오히려 학교 생활이기는 분해 학생 취급을 받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 창립자 가한 1등 부자가 생긴다는 현실 제 현실들이 야기되고 있는 기특독자의 논변이 많이 수려해 보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 '재벌 때문'이라는 원인은 틀리지 않다. 우선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는 자본집중적 산업이 아니라 때때로 대기업의 영향력이 때때로 작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이츠와 저커버그는 매우 잘 준비되고 소위 부유한 계층이었다. 게이츠 경우 하버드 때부터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배웠고, 교과 때 과학과 동등한 분 석기를 개발해 팔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게이츠는 하버드 3학년 때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고 그곳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 학업을 휴학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된 것이다. 그 또한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의 부단하게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 학생이었던 것이다. 게이츠와 저커버그는 연구하는 시기 수련(修鍊)을 연습하게 한다.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가능성의 세계가 정경민(이화영) 같은 학생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한다. 게이츠와 저커버그의 성공 뒤에는 평등한 기회와 포기가 있었다.

정권교체를 도입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셋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개혁 사항이 바로 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과 재산공개다.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는 오래 전부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직접 조사한 내각부총리 조지 지다와 사회인정부를 조지 담당장관이던 리원차오 등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것은 시진핑의 중국의 정치개혁에 이 방향대로 갖 것인가를 예견하게 해 주는 것이다. 둘째, 시진핑의 중국이 서양식 다수당 정치체로 변형하지 않더라도 하버드도 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이다. 국가적 의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나는, 사법제도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인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당은 사법제 재벌 제도도 공산당의 권력 장악에 사용했었다. 국가적 의의의 직접적인 실행을 위해, 특히 고위 관료들의 사법제 재벌 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사법제 재벌 제도에 어느 정도의 독립권을 부여할 개혁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셋째, 정권 교체 지도자 선출에 정권교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산당 지도자들의 선출은 거의 지명제도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공산당 통치체제이다. 후보자

*동문제현들이 고위직에서는 모두 급을 얻고 동문회로 집결한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오페라 특집 < Aria >**

멋쟁이 아리아 이야기



김재영 (농대 62)
남양주 SUO Opera 예술 이사장
유주 동창회 이사

우리 학생 시절, 학생회가 준 기증품들이 극히 제한되어 상당한 수의 학생들은 음악 다방이나 디스크 가게가 있는 Music Hall(나트코스 등)에서 시간을 죽이곤 했다. 비록 저리 어려울 것이 절하게 되는 노래가 없었으나 유려 미미한 것은 어이없었는데 그 내음을 잘 기억하고, 노래 제목이나 노래 가사는 분부히 노트를 해서 하야 온 친구 수첩에 적었다.

예를 들어 아레의 <2대의 찬송>이 작품 중엔, 또는 친구의 순진함을 얻지 못한 제 친구로써 오직 수 비에 일인적이었다.

▶<2대의 찬송(Chœ qu'il m'aima), Puccini의 La Bohème> 2대의 찬송은, 음용질이 제구로, 내리 두루나오? Rodolfo, 시인, 혼은 없이나마 내는 사랑자?

가장 인기있는 때는 아마도 팝노래로 따라 부르기도 했고 PopRock으로 편곡되기도 했다. 라피의 Latin Square에 저처럼, 젊은 시인·음악가·화가·철학자 및 방탕도 못다한, 주운 거슬림에도 따라가 없이 신사에게 송고래야 할 시 원고를 돌려 손은 녹는다.

백는 X-mas 했다. 세 사람이 Latin Square에서 벌어지는 parade를 구경하며 저리 나가고 Rodolfo가 나가려는 순간 걸림자 가서(Mim)가 붙어 붙은 옆에 들어오는 참나, 바람에 불려도 멀쩡하고 춤에 Mimi가 쥐고 있던 열쇠를 빌려드린다

▶<2대의 찬송>에 그대 사랑의 Mimi가 두나의 유영한 아리아 "Call me Mimi", 다음 이어지는 Duet, "Too lovely young girl in the moonlight", 이 22간짜리 Love scene은 모든 opera 중 최고로 잘다.

모든 예술 분야가 근원을 할 수 있는 거인 발명재 이니 노래의 근원을 거인 발명재, 유주 Opera만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 즉, 영원이 있는 광란대 이야기다(영화가 예술이 아닌 문란 그 시적이 뚜렷하다).

분은 부류의 요람 피렌체(Florence)의 메디치 가문, 도나타의 유영한 아리아 회화와 비평가가 극도로 무대에 올랐던 것이 Opera의 탄생이다.

당시 Classic은 왕궁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베지니아(Venice)는 국제 해양 무역의 중심지로 이탈리아 부류 Classic에서는 내리 귀족이나 젊은이 Classic에는

서슬대 미주 동향외보

가 부르는 'Toreador Song' 도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다. 소프라노나 테너는 음정에 따라 가르고 경쾌한 '부기아레' 부르고는 웅장한 '리리코', 부르고자 기뻐할 '드라마다르'로 세분된다.

주수미나 신영옥은 테너로, 홍흥성은 리리코에 적격이다. 또 원래 드라마틱과 정경이었던 마리오 디라티는 패져에도나 리리코 패져에도나 시대의 리리코 패져에도나 아슬투라노 아슬투라노(Assoluta)로 분류한다.

100여 편의 Opera에 출연한 플라시도 도밍고는 원래 리리코를 즐겼으나 쉬 세 음악은 물론 최근 바르토크의 예도 많아 테너나 소프라노로 지칭 Opera에서 돌아온 것을 눈여겨본다.

▶<축배의 노래(Libiamo, a drinking song), Verdi의 La Traviata> 아주 동양적이고 건부 60년대 집지 '야망과 실패'에나 나란 혼란 이야기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를,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녀는 내게 사랑했어..."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224호 2012년 12월

gari)의 역할이 독특 했다. "나는 이바라시와 친한 친구의 사일, 연애해준 것들 등 못 하는 것들이야. 모두들 Figaro, Figaro 하고 여기 거기서 놀았어..."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이런 개인 날(A fine day), Puccini의 Madama Butterfly!> 애국 정교 Pinkerton 일본 제류에게 기생 처치로야와 혼돈 해 잠시 머물다 노르망디 귀환한다. 그 사이 아틀도 날고 3년을 기다려도 남편은 소외되었다.

<연이 계속>

오페라 특집 < Anna Bolena 제1막 >

안나 볼레나(Anna Bolena)



한혜연(외대 01출) 제퍼슨스 외대 내과 교수 및 부작곡가 김민희의 23번째 오페라 작품

심소스 공연, 극장에서 혹은 live telecast로 여러 영화화되어 오고 있다. Anna Bolena의 경우는 후대 여성 비극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정제된 감이 들지만 극히 아름답다.

막이 열리면 바로, 여왕 관례에 신화물이 나오며, 여왕은 관례에 나서다... "영웅은 아들이 아니라 왕은 이기 다른 여자로..." 내용의 함축을 한다.

Giovanna's 죽은, 영여명 Jane Seymour가 그녀 나하 "Ella di me, sollicita(회영)나 하(회영)를 하" 하는 불만... "Immani alla vita vittima(노) 상(노) 회생(회)와 만나(노)..."

장사후 안혜 Anna's 소프라노가 여왕을 대항하고 나타난다. 죽은 여왕의 유골을 들고 "이왕 유골은 유골이 아니라 죽은 자" 이라고 하자 조반나는 "여왕이 고귀하신 모습에 어찌 유골을 주시겠습니까" 한다.

여왕은 "그 말이 좋다" 하신다 수소노인 Smerco(소프라노)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Immani alla vita vittima(노) 상(노) 회생(회)와 만나(노)..."

한참 후속들 들으면서 자갈 깎기 게임을 회상한다 여왕 깎기 게임으로 노래를 부른다. "Immani alla vita vittima(노) 상(노) 회생(회)와 만나(노)..."

"자" 이라는 뜻으로 여왕을 불러 이야기하고 그 후에서 모후를 더 제퍼나나의 딸을 커서 준다. "그 그 회상(회)하고 후는 조반나에게 여왕은 "자" 내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하신다

왕의 딸이 도착했다 이미 여왕이 여왕을 대항하여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왕은 "죽은" 일 때문이어서 여왕을 원한도 있고...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그녀의 살아도 뜻밖이다 왕이 왕은 때를 넘어 여왕의 손에 제퍼나나 두 부를 끌고 키스하자 이라는 몹시 당황한다.

이런 과정을 쓴 순간도 놀라지 않고 주어진게 모든 일한 왕은

고 하는 왕에게 "그것도 여왕 자리가 올라선 후...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왕실부관 Hervey (테너)에게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요"라고 한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죽는다"고 하였다.

<다음 호 225호 계속>



수필

일산화탄소(CO)와 철(Fe)이 만나면



김학철(시대 73)

수소(H) 분자 두개와 산소(O) 분자 한 개가 만나면 물(H2O)이 된다.
수소도 폭발성이 있고 산소도 산화력이 있으니 둘이 만나면 수소 배로 휘발할 것 같지만 반대로 안전한 물로 변한다.
그러면 일산화탄소(CO) 한 분자와 철(Fe) 두 분자가 만나면...
“커피(Coffee)다.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을 해독하는 성분은 특별한 성분도 아니니 만나면 불안한 것은 오히려 커피가 된다.
물과는 화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며 좋은 니켈스 퀴즈이니 혼동 없으시길.
하지만 반드시 수스까 소피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인체에 대한 특성의 양면성을 내보내고 있는 커피에 아주 잘 어울리는



우리는 말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스타벅스 커피, 그리고 속에서 코팅된 커피를 했다.
도구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님르디온의 아홉발을 노래로 그렸 때로써 지나는 선인들이 좋은 유혹하여 생명을 갖아가는 바다다.

오디세이가 귀향길에 이곳을 가게 되었을 때 선인들이 귀를 닫으라고 자신은 가슴에 팔찌도 몸을 꽂고 묶었다. 바네의 노래에 미처서 배를 정지하라고 바꾸러 쓰러진 것 같아 막은 선인들이 그것을 들지 않았을 덕분에 부사의 고삐를 잡아 풀어준 것이다.
스타벅스는 별칭(보비트)이라는 괴짜같은 소설이 나오는 인물이다. 정적의 태담과는 선명하고는 달리 이따금씩 행위를 주장하는 행동양태이다.
이성을 마시지 못하는 유혹자가 아니라 술의 마신다는 인물이 이 커피와의 상반된 인물이 과연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절묘한 조화가 조구되어 있다.
물과 같이 안정성을 가질 수도, 아니면 커피와 불안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 말이다.

서울 도서관 개관과 문화산책



이연형(문리대 68)

지난 10월 26일 오후 6시에, 서울시설 광장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새로운 개관한 서울도서관(구 철학사 건물)에 걸쳐 늘인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맞아 당겨 흥분을 일으키고, 모두들 활짝 입을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다.
이 시창의 도서관광은 앞으로 많은 서울시의 구립 도서관들과 또 국내외 유명 도서관들에서도 볼 수 있듯, 테러나 비행으로 인접하는 중이리라고 한다. 주목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토·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고 한다. 뒤쪽에 우리보다 높게 지은 신당사와 연결되고,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서울 시민들의 안식처이다.
이런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경향신문이 주최하는 <일상성 문학제가 여기서 열린다. 신문기자들이 소설가들과 그들의 자필 원고, 편지, 출판 계약서, 사진 등을 전시하고, 3주에 걸쳐서 대규모 오역에

그의 문학에 대한 강의 행사가 실시됐다.

서울광장에서는 지난 대전에 출정했던 후보들이 인기 유세와 정세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동계 열나 열리는 시창도 문화산책의 예를 우리 미국의 모든 공공 도서관들도 시행해와 할 것이다.

또 시청 맞은 편이 덕수궁에서, 현대 미술관이 소장한 현대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시켰고, 석조전을 복원하고 있다. 벌써 복원된 많은 궁궐 등에서, '덕수궁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밤중까지 많은 문화행사들이 열렸다.

서울의 5도 향토(덕수궁-경복궁-창경궁-왕정궁-종로)를 구 사찰을 물론 있는 종합 관광권을 1만원이 사면, 1개월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문화산책과 도서관을 통해 문화와 그릇을 소개한 행사도 열릴 것이다.

문화산책에는 지난 11월 3일, 향토의 신주로 모신 것처럼 경기도를 둘러보는 우리보다 높게 지은 신당사와 연결되고,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서울 시민들의 안식처이다.
이런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경향신문이 주최하는 <일상성 문학제가 여기서 열린다. 신문기자들이 소설가들과 그들의 자필 원고, 편지, 출판 계약서, 사진 등을 전시하고, 3주에 걸쳐서 대규모 오역에

이들은 향토를 혼자서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개발된 한양성의 북문인 숙정문을 지나는 한양 도성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벽을 따라, 높고 밀집한 북한산과 인왕산을 등산하며 서울 전경을 구경할 수 있는 산책길이 새롭게 났다.

이렇게 흥미로 무양담을 사들여서부터 삼정공원의 탈바꿈한 안내소까지 걸어서 등산하는 코스는, 태조 이성계가 죽고 (1369년)하고 대대도 중한 양면의 기대한 규모와 건축을 있게 된다.

남서쪽의 예술의 전당에서는 11월 8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특별 전시 <테러의 반고포 > 열었다. 한스 데라 말(1897)과 미술사학자 빌헬름 뢰링(1885)은 3월-1889-2월)의 작품 60점을 발표한다.

화구 산악인 <대기 영감>의 초상(1887)과, 자화상 3점 작가는 스승들을 모신 영모의 시의 것 있다. 또 동양의 초기

그는 페르시아의 오마르카모에서 태어났고 같이 살며, 친척 제도를 인정 받은 직업 화가도 활동했다. 그러나 불교는 성격으로 아주 불화하다 결국 1888년에 자는 때일이 성취하는 날로 떠나 지어(1885) 3월-1889-2월)의 작품 60점

어떤 점에서든 몇몇 양국의 작품을 공개했고, 비엔나의 이 그림에 해독을 찾아 무대까지 가며 마련하여 이것을 태조 캐슈트하면서, 한민족의 자주성을 이 고쳐준다.

남을 불쌍히 아릅다운 서울의 문화 탐험을 두 주까지 기록할 것이다.***

우동가게 20년이면 장인 아난가



이명준(사회대 83) 글북백 에듀투스 발행인

저는 일본에 가면 커피가 없으나만, 카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운영하는 20년 된 사람들이 우동가게를 20년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장인으로 전다구요. 이 이야기는 한 분은, 그렇지 안 한국은 커피노래를 5년만 정도 인정하는데, 20년 우동가게를 할 사람은 그저 우동가게 주인으로만 대우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맞더군요. 우리는

“아, 이게 한국사회도 전형적인 직업 외에도 이렇게 생계형업에서의 장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조건도 프로의스는 신기한 기술 보 아주시겠습니까. 그 근저에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그런데 저는 얼마 전 한국 뉴스쇼에 깜짝 나왔습니다. 13세 소년과 같은 몸통과 같고 나머지 다 타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변호사 딸과 피아노 교사였고 하소, 그리고 그 쌍둥이 근저에는 위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3세 소년은 예술가의 가슴과도 같고, 이에 덧붙인 13세 소년은 예술가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그 쌍둥이 근저에는 위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3세 소년은 예술가의 가슴과도 같고, 이에 덧붙인 13세 소년은 예술가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그 쌍둥이 근저에는 위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은 하늘나라로 가고, 13세 소년은 평생 지을 수 없는 추후공급에 마음 속 새기고 살아야할 행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사가 말했다는 “커피의 본능은 유혹이다. 위험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 직감 지금처럼 뜨거운 세상처럼 달콤하다” 그것은 카르브레 전사가 마호메드에

게 주었다는. 술은 오히려 반은 사욕적이었다. 이 신 카르브는 기 인위적 재 화인을 성불했다는 의미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카르브는 신성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와 대립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와인인 인식과 문

명, 예술을 하는 건국이기는 반면 해외간 통상과 발달한 생활을 지어한다는 이유 때문

다. 특히나 서도 대립하는 두 동화적인 문화정체성을 꽃 피우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도 대립하는 두 동화적인 두 라이벌을 서로 공격하기 아무 다른 것들은 아니고 많은 점도 있다. 포도 풍류에 따라 풍류가 그것이었다.

그리고 졸기는 사람이 아니라 술의 맛이 달라지도록 커피도 풍류에 따라 그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졸기는 사람이 아니라 술의 맛이 달라지도록 커피도 풍류에 따라 그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다목적 마모모는 그 해서에 마침에 눈을 뜨고 카르바를 하치고 정실 후미에는 에스피토소를 마신다. 밤에는 카페카토나 마키아토로 하루를 보냈다. 불행히도 카르바는 겨울간들을 따먹을 때 하우스는 아이시시 커피를, 맑이 손끝을 올리는 여름엔 아스카 커피도 향기롭고 시원하게 보인다

그리고 모든 것이나 커피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간혹을 가리키는 작은 손가락과 한들 지나난 말인 유제이다.***김학철의 문학서재



특집 < 위남 북한 방문기 - 2 >

“우리 조국은 걷는 걸 장려한 단 말입니다!”



이원연(사회과대 81)
동향팀 편집위원
미주 중앙일보 08총국장

▶30분 일일 씩 술과 노래 흥취
이세아·이철 등이 무렵엔 평양의
도시 곳곳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 나왔다. 립산 하루를
떠러하는 스피크를 들며 왔다.
동행팀이 많은 코랴로드는
중학생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행진곡 흥의 곡
을 연주하고 있었다. 립토로
향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빨
라져 수배에 있었다. 양복이나
인민복 제종의 옷차림이 많아
색조는 단조로운 편이었다.

북측 안내원은 “우리 인민들은
우를 새겨서 좋아한다 말입네다”
라고 말했다. 술은 수반은
비스와 전체 술꾼자가 대동이
었다. 개인 술객자는 예, 젊은
분양에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조종현제 가족
이 사람 중 외에 드물다고
했다.

개인 술객자가 보편화 되어 있
기 싫어 술객자 시건이라고도
한국이나 서방국가 대도시처럼
술객자로 코랴는 어지는 현
상은 없었다. 비스는 대체로
남았지만 전차시 때였다. 출
퇴근 시간엔 풍나기 시작했다.
정경자다 길게 노는 줄이
보인다. 그러나 차량이 불비지
않으니 평양 도시이지만 배엔
이 거의 일터 공기는 없었다.
대중 교통망이 도로 구석구석
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은 탓인지
비나도 전철에서 내린 사람
들은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서

↑ 평양 아침 평양 시민들과 학생
들이 보도를 가득 채우며 일터와
학교로 향하고 있다.

지도 했다. 대표로 한 구석
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물건을
몰래 사고 파는 모습도 목격했다.
대동강변에는 자그만 바다
를 흐르고 푸른 물결이 오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도 했다.
평경엔 ‘강아미’ (시강을 제
위하고는 개인인 상행위가 제
용되지 않지만, 개인 간 상거래
는 점점 늘어나는 듯 했다.
강아미들에게 물고기도 하루
장마당쯤 보고 싶다고 부탁했
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나
화성진 장마당엔 최근 중국
산 물건을 많이 팔아면서 유제
에도 퍼져있었다. 재능있는 학
생들에게 예능을 가르치는 만
점의 학생소년군에서는 학생
연예인들의 노래·무용·기에 공
연이 이어지는 데 해의 관광재
를 관광객의 절찬을 자랑했
었다. 궁전 앞에는 관광스텐
드에도 퍼져있었다. 지난 4월엔
198만(60만 명) 규모의 외국
인민이 평양을 다녀갔다. 스웨덴 출신
의 한 관광객은 “인터넷에서
미국 관광객을 적극 환영하는
는 광고도 보고 오게 됐다. 저
때부터 숭배하는 내일이 많아
가져간다고 했기만 신기한 게
제이 미는 여행을 하고 있
다는 반응은 많았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철 씨를 걷고 여성들의 패션 모습이다. 평양의 여성들 중에는 상
당히 세련된 의상을 하고 있는 층도 많이 보였다.

이도 했다. 대표로 한 구석
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물건을
몰래 사고 파는 모습도 목격했다.
대동강변에는 자그만 바다
를 흐르고 푸른 물결이 오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도 했다.
평경엔 ‘강아미’ (시강을 제
위하고는 개인인 상행위가 제
용되지 않지만, 개인 간 상거래
는 점점 늘어나는 듯 했다.
강아미들에게 물고기도 하루
장마당쯤 보고 싶다고 부탁했
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나
화성진 장마당엔 최근 중국
산 물건을 많이 팔아면서 유제
에도 퍼져있었다. 재능있는 학
생들에게 예능을 가르치는 만
점의 학생소년군에서는 학생
연예인들의 노래·무용·기에 공
연이 이어지는 데 해의 관광재
를 관광객의 절찬을 자랑했
었다. 궁전 앞에는 관광스텐
드에도 퍼져있었다. 지난 4월엔
198만(60만 명) 규모의 외국
인민이 평양을 다녀갔다. 스웨덴 출신
의 한 관광객은 “인터넷에서
미국 관광객을 적극 환영하는
는 광고도 보고 오게 됐다. 저
때부터 숭배하는 내일이 많아
가져간다고 했기만 신기한 게
제이 미는 여행을 하고 있
다는 반응은 많았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대한 직계심 없이는 게
동일한 직계심은 한국 언론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을 제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
년마다 소위 대한 기회가 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
인민복을 사지 수 있을지 사신은
꼭도도 유용한 건지 만민들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동문 동창 (일부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김신웅 동문 '건국포장 수훈'



현재 시카고의 원광에 거주하고 있는 김신웅(사대 59) 동문은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아 고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의 훈장을 받았다.

'건국포장'은 우리 고국의 자주독립 운동과 건국에 공로가 현저하게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김신웅 동문은 지난 11월 19일 허원식 시카고 총영사로부터 이 훈장을 전달받았다. 김신웅 동문은 모교 사범대 공작학과 2학년때 세학 중이던 1960년 4월 19일 당시, 서울 을지로 6가 캠퍼스에서 나와 대구도 학생 시위대와 함께 광화문 경부대 앞까지 진출해 자유당 부정부패 규명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무력으로 오른쪽 팔에 총상을 입었다.

김 동문은 곧바로 서울대병원에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미주 동창회장 권기주장은 이 사실을 취재해 미주 동창회보 지면 2010년 4월호에 특집으로 게재한 바 있다.***

—김신웅(사대 59·사진 오른쪽) 동문이 시카고 총영사단의 허원식 총영사로부터 '건국포장' 훈장을 받고 있다.

이원영 동문 방북 사진 설명회



08명중 12월 6일 68 동보보에서

은 최근 북한의 변화상을 설명하는 한편 신문에 소개되지 않았던 취재 사진 및 동영상도 보여주시는 연재해 반향을 일으켰다.

이 동문은 지난 10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해외동포 통일 토론회에서 08명의 미주 대표단 중 일원으로 참석했다. 이 방북 후 중앙일보 미주판과 한국지체에서 신보환을 가다 시카고를 연재해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뒤 내리던 5.24 남북교류 중단 조치 이후 한국 언론으로서서는 첫 방북 취재라는 점에서 북한 보도 기사는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08명중 한명씩 회장을 "최근 수년간 한국 언론인으로서 북한을 방방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방북 취재는 북한을 바로 아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사건은 이원영 동문이 양강에서 북한 정경을 촬영 중인 모습이다.***

— '원 덴탈' 등 분야별 전문의가 각 과의 특성과 있는 전문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첨단 고정 전문의 최준호 원장, 보철 전문의 김태형 원장, 치주 전문의 구승희 원장.

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태형 원장의 부인은 교수다. 모교에서 졸업하고 97년 미국 땅을 밟은 그는 USC에서 수련의와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현재 USC 치과 대학과 포우이 과정을 60% 재직 중이다.

평소에는 예비 치과외과사들을 지도하고 인턴에 대한 한 번씩 원단에서 여담 환자를 치료한다.

김태형 원장이 소개하는 '원 덴탈'의 가장 큰 차별화는 전문성과 정직성이다. 보철과·교정과·치주과 등 분야별 전문의가 각 과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치료를 선의로 제공하고 인정된 기술이 가능하다고 있다.

김 원장은 "최고 수준의 치료만 권한다는 것이 '원 덴탈'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타원에서는 10개의 치과 치료 진단을 받은 환자가 '원 덴탈'에서는 스캔일만 받았던 것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김 원장은 말했다. 주소 625 S. Western Ave. #201 LA 오피스 (213)381-2828

'살의 안락' 등을, 셀미어 교수는 '슈퍼 X'와 '스카우트' 무의 물질기법(Dusk Matter)' 등을 제시했다.

박은희 동문은 모교 미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데이비스와 오후와 Wright State 대학에서 판화와 유화를 공부했으며 워싱턴 한미문화기행회, 해럴드 스트로트 갤러리 멤버도 활동 중이다.

셀미어 교수는 이스트 웨스트 힐 칼리지와 미주리 주립대를 거쳐 위스콘신대 매디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DAC(미국 디자인 미술교육진) 등에서 일했다.***

KACF 기업인상 수상 두스그룹 박용만 회장 샌디 피해자 돕기 1만 달러 쾌척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 계단(KACF)이 지난 11월 1일 개최한 연례 만찬에서 '기업인상'을 수상 받은 두스그룹의 박용만 회장. 이날 박용만 회장은 축사에서 허리케인 피해자 돕기 기금으로 1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 위로 대연에 동참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예년의 기금모금에만 한해서 달리 뉴욕 일원의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다스 일출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석 참석자 대부분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지 않았고 남성들은 대부분 티셔츠보다는 간소한 양복차림이 많이 눈에 띄었다.

제단도 매년 기금의 상당수가 모이는 경제 행사의 수익금 전액을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사 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특별 초청된 3명의 인사 중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참조 할머이 재경했던 만민군 IN 사총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 상황을 지켜보느라 부득이 불참을 통보했다.

기조인사였던 '빌 & 벨리사 케 이츠 재단'의 사와 리 행정위원과 리지 행정위원이 결성됐기 때문에 뉴욕 도화에 선행했기 때문이다.

행사 직전 언론과 만난 박 회장은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KACF가 도움을 손길을 넓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뉴욕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쩔지언만 몇 달 여운을 듣는 좋은 일"에 참



↑ 두스그룹 박용만 회장은 이날 KACF로부터 '기업인상'을 받았다.

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예정대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두스'의 박우현 조대 회장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난 박용만 회장은 모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보스턴 대학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1982년 부친의 기업체인 '두스'에 입사해 30년만인 올해 두스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되었다.

이후 박용만 회장은 대기업의 회장답지 않은 드루워 활음으로 알려진 뒤 보스턴 대학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1982년 부친의 기업체인 '두스'에 입사해 30년만인 올해 두스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되었다.

박 회장은 KACF 회원들을 가리켜 "대부분은 미국 국민인데도 하고도 헌신적이다" 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회원이든 두나라의 시민이든 모두를 낼 수 있는 생각과 행동으로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덕담을 남겼다.***



김태형 동문 'One Dental' 강조

"보철·치주·교정 전문의 진료"

"높은 안과 전문의에게, 피부는 피부와 전문의에게 가듯이 치과도 분야별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LA 한인타운 마담몰에 자리한 '원 덴탈(One Dental)'의 김태형 원장은 "기적이 아니라 의사를 보고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액은 이 치과나 미백 같은 간단한 한 치료는 일반의를 찾아가도 무방하지만 교정, 임플란트와 같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난달 1월 끝을 연 '원 덴탈'은 각 분야별 세 명의 전문의가 한 곳에 모인 치과 전문 병원이다.

원 덴탈(One Dental)의 김태형 원장은 치주 전문의 구승희 원장, 교정 전문의 최준호 원장이 '미스나'를 위한 병원이 아닌 환자를 위한 병원을 '임플랜트'는 마음속에 오고 있다.

김태형 원장은 "환자 중심이고, 치과에서 집중하는 병원을 만들

박은희 동문 '월 쇼' 열

지난 9월 비엔나 한미과학원



혁신적 건물로 확장 이전한 KACF센터(대표 김명연·사진)에서 중년 서양화가로 잘 알려진 박은희(매튜스다 교수)동문과 마이클 셀미어 교수(몽고메리 칼리지) 초대장이 지난 11월 열렸다.

11월 2일 개막해 30일까지 계속된 '두엣 쇼(Duet Show)'에서 이들 2인의 작가는 추상성 작품을 선보였다. 박은희 동문은 무수한 양화, 목, 음표, 선으로 구성된 '자음과 모음' D 강조 작품

'살의 안락' 등을, 셀미어 교수는 '슈퍼 X'와 '스카우트' 무의 물질기법(Dusk Matter)' 등을 제시했다.

박은희 동문은 모교 미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데이비스와 오후와 Wright State 대학에서 판화와 유화를 공부했으며 워싱턴 한미문화기행회, 해럴드 스트로트 갤러리 멤버도 활동 중이다.

셀미어 교수는 이스트 웨스트 힐 칼리지와 미주리 주립대를 거쳐 위스콘신대 매디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DAC(미국 디자인 미술교육진) 등에서 일했다.***



모교 조은수 교수 TARA서 특별 강연

박기주 청년 불교 신자들의 모모인 TARA,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반 보리사에서 법회 열어

박기주에는 청년 불교 신자들의 별도 모임인 '조은수 특별모임(TARA)'가 있다. 이 모임인 TARA가 지난 11월 정기 법회의 일환으로 '우리는 불교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란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모임은 모교 철학과의 조은수 교수를 지난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 법회 겸 별도의 세미나를 마쳤다.

조은수 교수는 [C]매일리를 방문 중으로 이 모임과 보리사 불교 신자들을 위해 특별 강연을 실시한 것이다. 이날 '법회의 세미나는 1부 에 배울 것'이라며 강의 내용은 법신, 그리고 정의 응답 법적으로 진행했다. 조은수 교수의 특별 강연에는 20여 명의 TARA 회원들이 참석해 경청했다. 불교의 '업(業)'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한 조은수 교수는 이날 불교 정통 해석 면에서 오히려 의지가 있는 '업'의 논리를 철학적으로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조은수 교수는 불교에서 보는

↑조은수 교수(오른쪽)가 지난 11월 3일 박기주 불자들의 모임인 TARA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 법회에서 '업'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불교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신과 안의 불자들에게 "불교 내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도 없고 선과 불선의 개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조은수 교수는 이어 "선과 불신, 그 둘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말했다. TARA는 매월 첫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보리사에서 법회를 갖고 있다. 이 모임에 대한 문의는 전화(010)393-3395로, 또한 메일은 amitaras@gmail.com으로 할 수 있다.***



성백문 동문 지난 2월 시인 등단 월간 창조문에 15주년 기념식에서

성백문 동문(공대 61)이 올 초엔 지난 2월 28일 서울 밀알학교 도산홀에서 열린 월간 창조문에 15주년 기념식에서 그동안 창작으로 등단한 시인 등단 축하를 하고 있다. 시인은 한국언어영역과 영어로 시를 썼다. 시인은 성백문 시인 등단하여 1B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 뒤 신학교에 전학해 신학

을 전공한 다음 복사가 되어 현재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성백문 동문은 특별 회의에 20명 이상 참석하고 영의리 시를 썼다. 시인은 성백문 시인 등단하여 1B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 뒤 신학교에 전학해 신학

강금자대표 한국 미술사 강연

'강금자' 대표로 '세계 속 명품' 한국 도자기 재조명

뉴욕에 소재한 한국 미술품 판매회 '강금자'의 강금자(사단) 대표가 뉴욕 한국문화원과 알 재단이 공동 개최하는 '한국 미술사 강연 시리즈' 두 번째 강사로 지난 11월 초정해 한국의 도자기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강금자 대표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6시 문화원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자기 예술'에 대해 강연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 강연은 귀족 문화와 북교 사상의 발달에 힘입어 독창적인 문화 예술을 꽃피웠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진행했다. 즉 고려시대(918-1392)의 삼국 문화의 기원과 조선시대(1392-1910)의 순화적 변화와 배자, 그리고 일반 백성을 위한 분청사기, 다량형 제작과 청동기를 역사적·미학적 시각으로 비교 분석했다. 또한 세계 시국 속에서 한국도자기를 비교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강금자 대표는 한국의 도자기 역사 또한 아시아 한국 미술을 둘러싸고 그동안 쌓아온 32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 미술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트렌딩과 예술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강금자 대표는 1981년 예르테롤



리안 유지영 인연에 '강금자'를 설립 후 레드 푸지영, 영국의 대학 박물, 와비노 대학교 세를리 유지영, 삼국 미술관 박물관 등 전세계 주요 박물관에 한국 미술품들을 알렸다. 강금자 대표는 한국에서 모교로 이강연 2년 수료 후 미국으로 건너와 벨즈 칼리지에서 서양 미술사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컬럼비아 대학에서 동양미술사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미술사를 전공한 바 있다. 이번 도자기는 열여섯 번째였다.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www.koreanculture.org)에서 강연 프로그램을 위한 20여 명 행사 내용을 자세히 검색해볼 수 있다.***

박윤수박사미주 한인재단정상화 길 더



위성현의 미주 한인재단 전국조직이 그동안 한 회장단과 파행적 단체 운영을 이유로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내란적인 갈등이 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박윤수(문리대 48·미주 동맹 초대 회장·사건) 박사의 리더십에 의해 극적으로 다시금 정상화의 길을 찾아 갔다. '미주 한인재단은 지난 9월 20일 열린 임시 총회에서 박윤수 총회장이 8대 총회장으로 재선됐다고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미주 한인재단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총회 회의록 공개와 임시 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이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태도에 박윤수 총회장은 지난 10월 29일 회원들 간에 교란된 e메일에서 '높은 경감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미주 한인재단을

이끌어준다면 내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2013년 총회장을 박윤수 박사가 맡으면 옹호하겠다'고 결의, 분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박윤수 박사는 지난 10월 31일 분규 현장에서 '만일 현재의 분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달라야 할 생각이었고 이를 110주년을 맞아 열의 맺고 있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화 대책위원회인 정세권 전 명예회장은 "미주한인재단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돼 두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윤수 박사는 한 인연의 11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 인물이다. 대우와 대우의 차가 무엇이 아닌 이인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믿는다"

김선신 교수 건강검진 제대로 받기 강의

모교 서울대 병원 김선신 교수가 지난 12월 11일 뉴저지 임글루드 KCC(한인동료회)에서 열린 뉴욕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제대로 받기' 강의를 했다. 이 세미너는 뉴욕 중앙일보와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 전문 의료인 건강·의료 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된 것이다. 이날 김선신 교수 외에도 한 대학의 유명 의료기관 및 민간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의료기관들의 의료진을 강사로 모시고, 최후

등 전문가와 종합검진에 관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들 소속된 9개 의료기관은 행사장에서 개별 상담과 해외방문사·부류한진료소 등의 의료정보 기회도 제공했다. 또한 화가에게 선화선으로 미술사 화가에게 증명서와 강릉 행사를 통해 무료 진료권과 고급 화장품 세트 등도 선별됐다. 이 행사는 한국 보건복지부, 서울시 강구구, 강구구 병원협의회, 미국진료 건강복지 기관 협회가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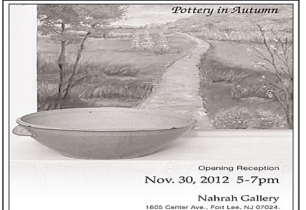


뉴 뮤직 콘서트에 동문 대거 참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국 전통 및 현대음악 연주회에서 한국 뉴뮤직 협회 대표가 출연

현대음악의 세계적인 작곡가로 잘 알려진 진은숙(서울시향 현대음악 감독) 동문은 비록 해외로 유학의 이신우 교수(작곡과), 김승근 교수(국악과) 등이 지난 12월 8-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동문들을 위해 연주회를 열었다.

이 연주회는 8일과 9일 각각 한국 전통음악과 한국 현대음악을 위한 음악회인 '뉴 뮤직 콘서트(New Music Concerts Toronto)' 주최로 베티 올림피아 극장(Betty Oliphant Theater)에서 열렸다. '한국 전통과 현대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 연주회에서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겸 지휘자 로버트 로트먼즈(Robert Aitken) 씨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뉴뮤직 콘서트 양상환의 연주가 포함됐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동시에 소개하며 한국 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물론 캐나다 주류사회에도 널리 선보였다. 음악회는 동문 교수진 외에도 안소정(캐나다 작곡가), 강서희(계명대 특임교수), 임종우(한양대 작곡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광원 원장 부인과 2인전

4년 전 포트리에 종합 문화공간을 꿈꾸며 출발한 뉴욕의 나와 갤러리. 김광원 원장은 그동안 떠올리며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8년 10월 비엔나에서 열린 동문들의 문화공간이 부각한다는 생각에 자리를 틀어 갤러리를 열었다. 1700스퀘어피트 규모로 평면·입체물·영상·설치 미술 등의 전시가 가능하다. 그동안 30회 가까이 다양한 전시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포트럴을 포함한 뉴저지 한인 사회에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교 미대와 프랫 대학원을 졸업한 김광원 원장은 대구 계명대 초대 학장(1981-83), 한양대 디자인 대학 교수·학장(1989-99) 등을 역임한 뒤 미국에 왔다. 김 원장은 미국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개인 작품활동용을 하고 있다. 특히 유화·풍경화를 주로 그리는 순수미술로 다

시 들어갔다. 그는 "한국에서는 디자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은퇴 후 갤러리를 개관하고 그동안 못했던 유희로 된 풍경을 그렸다. 다시 유희를 즐긴다 보니 이렇듯 황소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무한히 진행경력의 함께 부부 2인전을 열었다. 김 원장은 유화·풍경화, 부인은 조각기를 출품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작품활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에 두 사람이 그동안 준비한 작품을 지인들은 물론 미술을 좋아하는 한인들과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원장은 "한인 단체들에게 세미나, 워크숍 장소도 제공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한인사회의 융합적인 문화센터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뉴욕 등에서도 다 많은 분들이 갤러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종환 원장 살아는 인생 에세이 출간



‘차종환 박사 교육인생’

한미 교육연구원의 차종환(76·사대 54) 원장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에세이 형식으로 정리한 '차종환 박사 교육인생' (동양서적)을 펴냈다. 전남 강진 출신인 차종환 원장은 온 에세이를 통해 조상과 조국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게 정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전쟁과 4.19 혁명, 그리



차종환 원장의 에세이 표지

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걸친 현대사의 격랑을 경험한 이야기를 서술했다. 또한 서울대 동창회보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 단체들인 LA매일, 문화월, 호남 향우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당시의 소회와 몇 이야기들이 책에 담겨 있다. 차 원장은 민주화운동인 LA 지역협의회 제13기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책의 문의는 (213)385-4279 ***



오명현 동문 창립교회 담임목사로 설교

LA에서 코리넌트 교회 창립목사 오명현, 4905 East La Palma Avenue, Anaheim)가 지난 10월 창립했다. 이 교회는 미주 창립교회 남서부 지방회 소속으로 주류사

문 오명현 담임목사를 비롯해 100여 명의 교인 및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이교단 유년은 교사와 원로목사가 정종관, 조종관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이 교회는 미주 창립교회 남서부 지방회 소속으로 주류사

LA에서 창립된 코리넌트 교회에서 창립을 해치고 목회자와 신도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오명현 담임목사) 회 교인인 '코리넌트 지' (교인 2,000명 규모) 내에서 출간됐다. 문의는 (714)204-5223 ***



김준식 목사 출판기념회

‘요한계시록의 종언’ ‘문자 담임’의 해석에 초점 맞춰 김준식 목사(주예수사랑교회)가 지난 11월 20일 LA의 JJ

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준식 목사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관심을 집중했다'면서 "21세기 문명을 이끄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입각해 풀었다"고 책의 특장을 설명했다. 김준식 목사는 모교 문리대 졸업 후 30년째 이민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 Bethany Theological Seminary(B.T.S.) 학위를 받은 뒤 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Church 한국 지방회 총무를 역임하였다. 김 목사는 현재 4대째 이어 받아 온 예수교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과 모순된 열정적 속(말, 디오) 학위를 받은 뒤 모교인 이에 대한 출판기념회도 하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CEO 김혜정 동문의 결혼정보회사 '듀오'

LA 에서 결혼 직령기 20~30대 모임

결혼 정보회사 '듀오'의 대표이사는 김혜정(문리대 82) 졸업이다. 이 '듀오'와 LA에서 지난 12월 7일 결혼 직령기에는 20-30대를 위한 모임을 개최했다. 미국에서는 결혼 직령기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 일을

하다 보면 금방 결혼 직령기가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녀들이 주위에 너무 많지만 이같은 행사에 자녀를 설득해 참석을 시키는 것도 부모님들이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자녀들이 이같은 행사에 참석을 하고 나면 두번 놀았다고 한다.

첫째는 생각 외로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두번째는 한기면에 여러 명을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이상을 갖는 인연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임이어서 너무 좋았다는 사실에 Feedback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만남의 기회가 많지만 미국은 골고루 만남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딱딱하기도 하지만 맛있는 식사와 열려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스피드한 미팅과 행사의 진행을 했다.

이런 파티를 통해서 여러 쌍이 이루어져 결혼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매년 6월과 12월에 LA 유모에서 이벤트 모임 행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결혼 및 만혼 이벤트 행사도 중간 중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결혼 직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 혹은 새혼, 결혼이유서진분들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결혼이유서진분들을 소개 받을 수 있는 전문 회사 '듀오'로 문의하면 좋을 것이다. LA 유모 전화 213-383-0077*** <제니퍼>



최용완 동문 '사랑방 글 셋터'

최용완 동문이 인도하는 문예 창작교실, 재미있게 함께 생각하고 느낌을 나누는 글 셋터, '창작으로 자기표현을 하세요'

시인으로 한국의 고전문화와 전통문화이며 미주 동창회도 소설이론 최용완(공대 57) 동문이 창작 교실 '사랑방 글 셋터'의 회원들을 확장 모집하고 있다.

이 모임은 현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회원들이 직접 쓴 글에 대한 발표와 의견 나누기 외에도 글셋터에 관한 자료를 읽고 있다. 다음은 최용완 소설이론의 이 모임에 대한 글이다.

우물거려 모여서 이야기하며 좋은 생각을 말하고 느낌을 나누는 곳으로 써서 자기표현을 합니다.

좋은 글을 함께 읽고 감상하는 동안 논리적인 사고와 설득력 있게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은 기쁩니다. 듣는 습관, 감상하는 방법,

창의적인 표현으로 서로 공감을 이루며 우리의 삶이 더욱 중요해지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매일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존경스럽고 헌신하는 자질이 향상됩니다. 글 셋터의 인지도가 향상됩니다. 글 셋터의 시 반박의 즐거움으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세상을 다른 이들이 다르게 보지는?" 하는 질문은 중요 오십시오. 혹은 쓰신 글을 가져오셔서 5분 동안에 발표하시고 나서 즐겁게 토론하고 서로의 장점을 열고 함께 배웁니다.

"나의 이야기 안에서 내 삶을 좀 더 지혜를 얻습니다. 빈손으로 그냥 오시더라도 다른 이들의 시와 수필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글 쓰는 이해에 도움이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홍승욱 작가와 강정선 수필가가 초청 강사로 모시고 최용완

'사랑방 글 셋터' 회원들이 모여 글셋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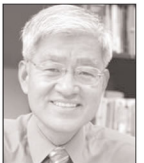
시인과 함께 여러 장르의 문학 활동도 드루게 합니다.

주요 강좌 내용은 ▶수필-명필의 관대 ▶글쓰기의 기초 ▶나의 작풍 읽는 법 ▶현대 한국 명작 감상하기 ▶세계의 명문 읽기 ▶편지와 일기 쓰기 ▶기행문-프로 작성법 ▶자기소개서-자소서-진기 작법 ▶은술지도 명필가님 ▶독서지도 명필 연구 ▶에프드-논문 작성법 ▶여중급 글 심사방법 및 심사제 유형 등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모임일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친구들도 불러오시고 많이 참석하시어서 모든 혜택을 얻으시고, 평야는 이젠 평야 안에서 우리의 정서도 속속들이는 글 셋터로 즐거운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비 = 154리(간단한 점선 포함)입니다. ▶주소 = 12362 Beach Blvd #1, Stanton CA 90680. ▶문의전화 = 714-692-9910. 949-554-4721.

필라 동창회 손재욱 전 회장 부군 티모시 하에 오바마 행정부 NIBS 이사 부임



오바마, 국립건축과학연구소 이사로 취임하며 인사로 하임

전날이 총 21명의 이사로 구성된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건축 기술과 친환경 건설정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994년 필라델피아에서 건축 디자인 및 토목설계회사 '티모시 하스 앤 어소시에이츠 컨설턴트'를 설립한 하씨는 실무자이면서도 주주 환경 및 건축물과 어울리는 독창적인 건립의 건축과 현대식 구조시스템을 건물외면에서 이를 잘 알기 시작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외에 뉴저지, 조지아, 플로리다주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유엔 아태경제사회개발기구(UNEP)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 분야에 대한 정책화 재발표를 주도해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축하식(2009)에서 필라델피아의 옹호의 리더이자, 또 재민안과 과학기술정책 선정 '올해의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홍승욱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샌프란시스코에서 언론과 인터뷰

"한국이 세계화, 이젠부터는 질적 발전이 가장 중요"

홍승욱(사건-6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이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를 지역을 방문했다.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세제대학 수석교수를 겸한 홍 부의장은 19일까지 UC버클리, 스탠포드 등을 돌며 철문학의 발전상을 조사했다.

홍 부의장은 모교와 경희대 대학원에서 각각 경영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법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방수사처 차관, 인화대학 교장을 지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수업 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월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취임해 활동하고 있다.

▶발문 출처: "11월 한국 대학 개선 방안과 생선 전략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헌장 조사" 나 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이 교육 환류수출과 비전 있는 고등교육부 수립이다. 실 질적인 고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UC버클리 현지 조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권위를 갖춘 대학들의 개선 방안, 생선 전략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또 생선 학업이 교육 환류 수출의 역할은 전진기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설원은 무엇인가. "세종학당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양보다는 질적 성장을 중요하다고 본다. 개교 할 때만 흥행사가 와서 사장이 나 할 것 없고, 혼자서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개교하면 안 된다. 문화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앞서 말했지만, 혼을 주는 것이다. 세종학당이 위치한 핀란 흥행사와 비교하면 앞을 서서 그 나라 사립 대학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다. ***



"3이(이)?" 표현하고 있다. 흥미롭고(Interesting), 혁신적이(Impressive), 혁신적(Innovative)이었다. 교육이 하는 것은 '혼'을 가르치는 것인데, 오늘날 벨 위즈데에서 타인국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는 물론 역사 관련 문제까지 맞추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열과 혼에 대한 교육이 되고 있구나' 하고 느껴 웃었다.

이달의 초대작가>> LA 현대 동향회 홍선애(미대 62) 회장

“목적을 위해서는 꾸준히 밀고 나가야죠”

화가·그래픽 디자이너·시인·84 LA올림픽 조직위 Staff등 팔방의 만능 엔터테이너

‘팔방미인(八方便人)’이라면 필자 수준급의 의미가 기본으로 명칭만 봐도 결코 과부 남다른 대단한(多才多能)한 재주의 소유자를 뜻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날 광고부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수준급의 의미’까지 갖춘 경우는 드물게 보듯이, 신은 진짜로 ‘팔방미인’을 좀처럼 만능화하지 않는 심정을 부리기 때문일지.

그러나 LA 현대 동향회의 홍선애(미대 62) 회장이야말로 ‘팔방미인’의 전형(典型)을 보는 것 같다.

우선, 여동생(홍정애)이 1967년 Miss Korea ‘진’ 출신이니까 언니의 외모 역시 그 DNA와 인종도 닮은 것 같다. 62학번이므로 사의 외모는 장성(莊盛)같이 오 신년도 수려한 모습이 감추어지지 않을 것 같다.

어머님이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고교와 미대를 수필형 특자로 입학한 정도였으니 ‘별 상분은 나무는 바람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전혀 부재하지 않을 것 같다.

원래와 친권인 서양화 외에도 그림에 흥미가 있으며 사진작가로서도 남다른 조예를 보이고 있다. 시인으로서도 작품은 ‘World Poetry 1991’년 편에 올라 있다. 작곡가였던 1980년 ‘LA 올림픽’ 당시에는 조직위원회(인선)으로 Staff 출신임을 밝힘에도 불구하고도 했으니 다재다능은 물론 별건(?) 경력의 장본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저장까지 서양의 작품전은 서울과 LA에서 개인전 12번, 단행본은 뉴욕을 포함해서 25회의 수상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Laguna Beach에 소재한 ‘Sand Stone Gallery’에서 개인회와 함께 작품활동 중인 홍선애 회장을 편집주간인 LA ‘작가’의 ‘역’에서 만나본다.

미술을 전공한 절기는 무엇이었나.

“부친의 영향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취미가 있었던 세은 미술수업과 고(현)는 초등교육과 4학년 때 미술대원에서 1등을 받았어요. 전에는 4학년에서 4학점씩은 전공 1등급을 수능한 것이 미술을 전공하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부친도 미술을 전공하셨나.

“어바님은 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 미술에 심취하여 시 선진(詩進)의 국전에 입상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진의 유진인자를 받은 모양입니다.”

—중·고교시절에도 상당히 일상을 즐겼을 것 같은데요. 미술은 서울에 가서 진학했지요. (홍 회장은 서울에 계시지 못하시며 일약으로 스키유학에 이화여고로 진학하지 않은 것이 어딘은 마음에 걸리는 듯 했다.)

—오교 미대에 오기 무렵엔 입학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당시 대학에 입학하려면 누구나 국고고시를 치러 합격해야 했어요. 그런데 모교 미대에 오기 위해 초·중·고교시 잘 공부한 입장에서 그 1명씩 무시험 특례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 해부터는 미대에서 첫 수채화로 입학했지요.”

—대단한 영예이었네요. 대학 시절엔 어떤가요. “한국에서 가장 큰 공모전은 역시 국민미술입니다. 그런데 4학년 때에는 전학장의 경우 4학년에서 이상만 출품하라고 했으나 나는 이를 기각하지 못했고 1학년 때

“그래픽 디자이너로 ‘Creativity 1972’에 등재, 시인으로서 ‘World Poetry 1991’ 등단… 거장 Dalí가 특별 초청해 저서에 직접 홍회장 상장을 Drawing해 증명”

부드 출품해서 입상한 적이 있어요. (홍 회장은 매년 입상해서 일할 정도로 4학년 때 ‘민간’이 뽑은 ‘발라드’를 예술가 Artist 100) 1등으로 선정됐어요.”

—한국에 첫 번째 작품활동이 더 활발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은 고교시절부터 공부한 것이었어요.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하기엔 아무런도 세계적인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할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뉴욕에 거주중이던 노년도 적극 찬성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 졸업후 오시게 됐나요. “작년에는 ‘서울대’에 특목으로 입학한 유학한 공대생이었는데, 그 공대생이 홍 회장이셨어요. 그 공대생이 홍 회장이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다했습니다. “FIDM(Fashion Institute of Design & Merchandise)에 들어갔지만 사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Fabric에 관한 것이어서부터 Fabric에 관한 것이 많았던 탓에 뜻에 맞게 서두러 몇 어떤 과정을 거쳐서부터 나오느니라 직접적으로

“1971년 1971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모님이 절의 포아인팅 사진기 때문에 남편도 아무런 목적으로 권했어요. 그래서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LA에서 작품활동만 하셨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다했습니다. “FIDM(Fashion Institute of Design & Merchandise)에 들어갔지만 사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Fabric에 관한 것이어서부터 Fabric에 관한 것이 많았던 탓에 뜻에 맞게 서두러 몇 어떤 과정을 거쳐서부터 나오느니라 직접적으로

—2010년 8월 모친의 80세 생신날 파티를 열었다. 몇몇 일목부터 홍 회장, 머니즈 Janet, 남동생 Jans Hro, 남동생 장나 Jacylyn, 막내 Austin, 남동생 Andy, 홍 목사님, 아들 Jim A. Kim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969년 미대를 졸업하자마자 뉴욕에 가 ‘Parsons School of Design’에 입학했어요. 이 학교 졸업 뒤 ‘Carl Fischer, Inc.’라는 회사에서 Designer로 일했습니다. 워싱턴의 100년이 된 회사는 Parsons의 Cover Design을 맡았을 때 작품활동을 하는 때도 많은 기간이 됐다고 합니다.”

—시애틀에서 Graphic Design은 방향이 약간 바뀐 것 아닌가요. “Graphic Design 역시 다양한 재능을 겸비하고 다면의 재능이 심미적으로 예술상을 창작하는 세제와 미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공부할 때 많이 배우고 오리라 하니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도 있었어요.”

—Graphic Designer로서 뉴욕에서 많이 배웠어요. “1970년 어느 날 모임이 ‘Congratulation!’ 라고 했어요. 영문은 물론 ‘우승 소년!’이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Graphic Design 작품을 함께 ‘Paul Revere Award’를 수상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Paul Revere Award는 미 진역에서 한 해 동안 출판

Boxing Tournament Poster에 입상한 작품이 있어 미국 올림픽 대회 준비위원회에 Apply한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제비 마크 올림픽 경기장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Staff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다. 나름대로 1984년 LA올림픽 때는 정말 보람있고 가슴 뭉클한 일이었지요.) (홍 회장은 이화여중에 입학하자 부친이 카미라를 선물해 학생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사진작업 활동을 행해오고 있다.)

—뉴욕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던 시절엔 LA로 오시게 됐지요. “지난 1971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모님이 절의 포아인팅 사진기 때문에 남편도 아무런 목적으로 권했어요. 그래서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LA에서 작품활동만 하셨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다했습니다. “FIDM(Fashion Institute of Design & Merchandise)에 들어갔지만 사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Fabric에 관한 것이어서부터 Fabric에 관한 것이 많았던 탓에 뜻에 맞게 서두러 몇 어떤 과정을 거쳐서부터 나오느니라 직접적으로

“지난 1969년 미대를 졸업하자마자 뉴욕에 가 ‘Parsons School of Design’에 입학했어요. 이 학교 졸업 뒤 ‘Carl Fischer, Inc.’라는 회사에서 Designer로 일했습니다. 워싱턴의 100년이 된 회사는 Parsons의 Cover Design을 맡았을 때 작품활동을 하는 때도 많은 기간이 됐다고 합니다.”

—시애틀에서 Graphic Design은 방향이 약간 바뀐 것 아닌가요. “Graphic Design 역시 다양한 재능을 겸비하고 다면의 재능이 심미적으로 예술상을 창작하는 세제와 미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공부할 때 많이 배우고 오리라 하니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도 있었어요.”

—Graphic Designer로서 뉴욕에서 많이 배웠어요. “1970년 어느 날 모임이 ‘Congratulation!’ 라고 했어요. 영문은 물론 ‘우승 소년!’이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Graphic Design 작품을 함께 ‘Paul Revere Award’를 수상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Paul Revere Award는 미 진역에서 한 해 동안 출판

Boxing Tournament Poster에 입상한 작품이 있어 미국 올림픽 대회 준비위원회에 Apply한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제비 마크 올림픽 경기장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Staff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다. 나름대로 1984년 LA올림픽 때는 정말 보람있고 가슴 뭉클한 일이었지요.) (홍 회장은 이화여중에 입학하자 부친이 카미라를 선물해 학생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사진작업 활동을 행해오고 있다.)

—뉴욕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던 시절엔 LA로 오시게 됐지요. “지난 1971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모님이 절의 포아인팅 사진기 때문에 남편도 아무런 목적으로 권했어요. 그래서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LA에서 작품활동만 하셨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다했습니다. “FIDM(Fashion Institute of Design & Merchandise)에 들어갔지만 사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Fabric에 관한 것이어서부터 Fabric에 관한 것이 많았던 탓에 뜻에 맞게 서두러 몇 어떤 과정을 거쳐서부터 나오느니라 직접적으로

—2010년 8월 모친의 80세 생신날 파티를 열었다. 몇몇 일목부터 홍 회장, 머니즈 Janet, 남동생 Jans Hro, 남동생 장나 Jacylyn, 막내 Austin, 남동생 Andy, 홍 목사님, 아들 Jim A. Kim



홍선애 회장은 “10년 전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Carl Sagan의 ‘Cosmos’라는 DVD를 본 후 우주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이를 주제로 우주의 아름다움을 추출해서 영감인 미국인 매치한 우주 Energy, Power, Speed 등을 복제해 책속에 담았다”고 했다.

“우승 소년!”이라고 했어요. 영문은 물론 ‘우승 소년!’이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Graphic Design 작품을 함께 ‘Paul Revere Award’를 수상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Paul Revere Award는 미 진역에서 한 해 동안 출판

Boxing Tournament Poster에 입상한 작품이 있어 미국 올림픽 대회 준비위원회에 Apply한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제비 마크 올림픽 경기장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Staff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다. 나름대로 1984년 LA올림픽 때는 정말 보람있고 가슴 뭉클한 일이었지요.) (홍 회장은 이화여중에 입학하자 부친이 카미라를 선물해 학생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사진작업 활동을 행해오고 있다.)

—뉴욕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던 시절엔 LA로 오시게 됐지요. “지난 1971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모님이 절의 포아인팅 사진기 때문에 남편도 아무런 목적으로 권했어요. 그래서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LA에서 작품활동만 하셨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다했습니다. “FIDM(Fashion Institute of Design & Merchandise)에 들어갔지만 사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Fabric에 관한 것이어서부터 Fabric에 관한 것이 많았던 탓에 뜻에 맞게 서두러 몇 어떤 과정을 거쳐서부터 나오느니라 직접적으로

—2010년 8월 모친의 80세 생신날 파티를 열었다. 몇몇 일목부터 홍 회장, 머니즈 Janet, 남동생 Jans Hro, 남동생 장나 Jacylyn, 막내 Austin, 남동생 Andy, 홍 목사님, 아들 Jim A. Kim

에는 ‘Best Poets by 342 Eninent Poets in 70 Countries’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 이 시집에 실린 작품의 수를 손꼽힐 수 있다고. 선진들은 주로 아시아에 많이 게재됐었는데 이 시집을 보고 ‘World Poetry’에서 작품을 기고해달라 고 해서 기고했지요.”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2010년 8월 모친의 80세 생신날 파티를 열었다. 몇몇 일목부터 홍 회장, 머니즈 Janet, 남동생 Jans Hro, 남동생 장나 Jacylyn, 막내 Austin, 남동생 Andy, 홍 목사님, 아들 Jim A. Kim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후손들에게 바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가주 지역 단과대별 송년회

상대, LA Rotex Hotel서 송년회

남가주 지역 동문들이 12월 들이 각 단과대학별로 2012년 정기 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지난 15일 LA에 소재한 Rotex Hotel에서 5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와 송년 회를 즐겼다.

유명된 회장은 제1부 정기 총회였는데 기피, 선언과 함께 인사말과 감사자 소개를 했다. 송년회와 송년회 최정호는 양승훈 이사장의 인

사말 전 "양 이사장께서는 특히 많은 도내이신으로 동창회 살림을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 원로 정원호(38) 동문은 건강상 마님의 부축을 받으 면서도 참석했다.

정 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 다 송년회 행사만 되면 가슴이 설레 정도로, 남가주에 특히 상대 송년회는 가장 소중한다"고 밝 혀 동문들로부터 힘찬 박수를 받

↑ Rotex Hotel에서 정기 총회 및 송년 회를 가진 상대 동문과 가족 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988년 입학으로 최고 원로인 정 원호 동문(왼쪽)이 김원준(50) 미주 동창회장과 함께 한 장면이다(윗 사진). 2013년도 상대 동창회를 이끌어갈 회장 및 부회장을 등 임할 명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승근(30) 총무, 김호석(81) 부회장, 김창욱 신임 부회장, 유병림(76) 회 장.

었다.

김창욱 동문은 76세로 지난 여 목을 안나프로나눔의 베이스 캠프 까지 동정한 뒤 사진과 함께 이



데 대한 경힘담을 들려주어 커다 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제2부 송년 파티에서는 전 문 오마 MC를 초빙해와 율동과 춤 등 어흥시간을 즐겼다.

또한 퀴즈와 노래 제판 등이 어 어였고 강릉 추경으로 동문들은 겨 이 모두들 푸짐한 경품들을 제 공받았다.***

명 더 두기로 했는데 김창욱 동 문이 선양된 것이다.

이날 제2부 송년 파티에서는 전 문 오마 MC를 초빙해와 율동과 춤 등 어흥시간을 즐겼다.

또한 퀴즈와 노래 제판 등이 어 어였고 강릉 추경으로 동문들은 겨 이 모두들 푸짐한 경품들을 제 공받았다.***



남가주알망단 '용궁' 서 연말파티

남가주 서울대 합창단이 지난 9일 LA에 위치한 중국 음식점 '용궁' 에서 지난 한 해를 마 푸리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지중근 (노동 56-사진) 동문은 "지난 해 정경으로 어려운 해를 보냈는 데 이렇게 많이 참가해주셔서 감 사를 드린다"고致辞했다.

지중근 동문은 매년 이어져 오던 '남가주 서울대 합창단' 의 정기 공연이 지난 해는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지 난 해는 정말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별과 짐사를 바르길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지중근 동문은 이어 "지난 한 해는 우리 남가주 합창단의 안 식년으로 살아 오려는 작은 쉼이 시작은 미약하나 내년 2013년에는 더욱 든든하고 푸 리가 있게 발전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남가주 합창단은 작기 합창단이 관공의 장상화과 때까지는 김원준(윤리대) 동문이 단장 직을 맡아 2013년의 행사 계획 을 세워 실행해 나갈 것으로 결의했다.

지중근 동문은 "그동안의 사 태에 대한 뜻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합창단 일에서 완전히 사 피된다"고 밝혔다.***



공대,작가의 집서 총회 및 송년회

공대 동창회가 지난 14일 LA 한 인타운에 위치한 '작가의 집' 에서 정기 총회및 송년회 '밤' 을 개최했다.

7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 여한 가운데 이병철(81)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선임 양민(77) 회장이 만장일치로 2013년 회장으로 선임됐다.

신임회장 추천에서 이병철 동문 은 "운명이 있고 숙명이 있는 데 운명에는 화살이 맞고 날아 오지만 숙명에는 화살이 피워서 날아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



↑연임된 양민 회장(왼쪽 사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날 초대 회 장을 역임한 정원호(45) 동문이 부인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 양민 회장은 숙명으로 화살 이 피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내 년도 회장 연임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회고했다.

이날 회장 취임식은 "지난 해 회 장을 맡아 보니 역시 회장은 아 무나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제고 보니 숙명 인 것 같아 매년에는 좀 더 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트랜드 동창회

장영준 동문 자택에서 송년회

Hartland 동창회(회장 구명순 ·간호대 66)가 지난 12월 8일 토요일 오후 장영준(농대 83) 동문 자택에서 3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모여 2012년 Christmas Party 추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는 동문들의 어린 자녀들이 같이 하며, 더 일찍 Family Party가 되었다. 집안이 나와도 손이 얼을 정도로 아름다운 Christmas Decoration으로 장식된 장영준 동문택에서, Wine와 각종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해 온 것까지 있었는 음식으로 한껏 Holiday Mood를 만끽하며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동문들이 모두 잊었던 비악이 그 날 내내 걸거져 서로 맛있는 음식의 Recipe를 묻는다고 분주하기도 했다.

50학년부터 90학년까지 동문들이 여기 저기에서 끊이지 않고 같이 나누었던 대화, 웃음하고 재미 가는 순간 순간이었다. 동문이지만, 동창회에서는 몇 년 동안 서로 동문인 줄 모르고 지냈던 장영준 동문의 본인 소개, 어린 세 쌍둥이를 데리고 열심히 참석하는 도태열(인문대 93) 동문의 소개가 Old Timer들에게는 큰 화제가되고, 미태를 볼 수 있게 하는 기회였다. 그동안 동창회 행사 때마다 몰상하게 참여해 온 것까지 있었는 음식으로 한껏 Holiday Mood를 만끽하며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동문들이 모두 잊었던 비악이 그 날 내내 걸거져 서로 맛있는 음식의 Recipe를 묻는다고 분주하기도 했다.

본인(구문회 회장)의 간단한 퀴

1장영준 동문 자택 송년회 후 동문 가족들이 기념촬영했다.

즈(모교의 역사 및 세계대학 평가 순위)시간에 답을 맞은 김준 동문(문리대 71)과 이주현(의대 02) 동문 등에게는 작은 선물이 제공됐다. 내년도 행사 일정이 미리 알려, 신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당부도 있었다.

푸리 4:5 시간을 온전, 참석하신 Oklahoma 이상강(의대 70)·김경숙(가정대 70)부부 동문님을 비롯하여 2시간 걸려 오신 Marhat-Norton(Kansas)의 송명국(인문대 90) 동문님께 특별한 감사패를 드린다.

송년회 행사가 끝난 뒤 동문들은 남은 음식을 나누어 가지고 가면서, 모교의 민담의 아름다움을 남기고,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기를 약속했다. 오랫동안 다시금 교가를 불러보며는 여유도 가진 것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동창회장 구명순▶



뉴욕 동창회

Avalon Auditorium서 연말 파티

뉴욕 동창회(회장 김창수·약대 64, 이사장 박신선·공대 61)가 9일 Flushing의 대우연회장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1935학번 위규홍(의대 95세) 동문부터 2012 세대가 학번까지 200여명이 참석할 송년회에는 김창수 회장은 지난 34년간 뉴욕 동창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전 회장단과 노고를 치하하고, 신 임원진, 이사장 및 전과대 동창회장을 맡고 후원을 담당해오신 많은 동문들께 감사말씀을 드렸다. 특히 노아영(이사항 35) Products Inc. (CEO 김광호·문리대 62), BNB 노영(이사항 35) 김창수·약대 64, 경영대학원 68) 등 송년회와 같이 열관사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전 회장단 김영만 동문과 전 이사장 최우승(상대 55) 동문에게 지난 회기 중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IT 위원장을 지내며 올해는 총무국장도 겸하고 있는 김원영(미대 81) 동문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디너 후 박양명(그교 약대 57)이 연주하는 핸드 옴과 노래에 맞추어 세 동문들이 참여하는 2012 Annual Ball과 커피, 만담, खेल 등으로 밤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은 뉴욕 동창회 장학위원회(위원장 성기호·약대 57)에서 선정된 모교 후배 유학생들에게 대한 장학금 수여식도 있었다. 다음은 이날 2천 500달러의 장학금을 받은 동문 지역 대학원생들의 명단이다. ▶이형태 (공대 02졸·MIT, Biomechanics) ▶이주호(공대 2003졸·Harvard, Architecture) ▶유승은(건대 2007졸·Columbia, Chemistry) ▶정인희(생과대 2009졸·NYU, Psychology) ▶한우진 (공대 2012 Yale, Architecture)*** <김창수 동창회장>



시카고 세중문화회

제9회 음악경연대회입상자 발표

시카고 세중문화회(이사장 김민호·상대 09)가 주최한 제9회 세중음악 경연대회에서 총 4명의 입상자 유망후보들이 입상의 영예를 얻었다. 지난 12월 2일 일리노이대 스프링필드(UIC) 피로빙 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부문으로 나뉘어 ▶고등부(9~12학년) ▶중등부(6~8학년) ▶초등부(3~5학년) ▶유소년부(2학년 이하) 등 4개 부문으로 총 85명이 출전, 지역적 1극과 자유곡 1곡씩을 주어진 시간 동안 연주해 기량을 겨루었다. 특히 피아노 부문은 10곡(송태우, 레지나·정지나, 진도·이리랑 등)과 바이올린 부문

의 9곡(두루미, 양산도, 세타림 등)의 한국 고유의 가락이 들어간 곡을 지정곡으로 연주한 것으로, 한인 1.5세대들은 물론 타민족 학생들에게도 많은 진흥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피아노 고등부에서는 Kyle Jannak-Ihang, 바이올린 고등부에서는 Tabitha On가 각각 1등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42명이 2~3등 장려상, 한국 해석상 등을 받았다.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되는 입상자 시상식은 2013년 1월 6일 오후 2시 시카고 컬처럴 센터 2층 플라자다아 캐시디홀에서 열리며 같은 날 입상자 연주회도 개최된다.***



북가주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미술전시회 연장 전시

북가주 동창회(회장 이상우·문리대 72)가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관한 장학기금 모금 미술 전시회가 전시 공간을 연장했다. 이상우 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산타클라라에서 11월 1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한인들의 성원과 요청으로 12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역 동포들의 관심

을 당부한 바 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산타클라라 지역의 '진 화랑'에서 'More than Art'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전시회는 주로 모교 대외 동문들의 작품들 전시·판매했으며 이로 인한 수입금전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 출품작으로는 '베일선 동문의 '무제', 'Less is More', '정인희 동문의 'Winter moon'

의 3점, 최희명 동문의 금속성 그림 3작품, 박혜숙 동문의 '선자의 달림', 도종우 동문의 스테인레스 스틸 4작품, 이지연 동문의 'Evening Lilies', 김정현 동문의 'SF거리' 2작품, 초대 작가 유영준씨(이화여대)의 Quickening 2작품 등 총 2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 작품들은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것이지만 전시 기간을 통해 30% 할인 판매됐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 뉴잉글랜드 동창회 동문과 가족들이 12월 1일 송년 파티를 가진 뒤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Avalon Auditorium서 연말 파티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정선주·간호 68)가 지난 12월 1일 Auditorium at Avalon, Lexington Hill에서 5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여 연말 파티를 가졌다.

파티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장학기금 관리와 동창회 활동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파티를 시작할 먼저 풍성한 저녁 식사와 환담 후 참석자 소

개와 연말 덕담이 있었다. 참석자 중 가장 선배인 1950년 입학 동문이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아 6.25 원구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중에 가장 후배인 02 학번을 포함한 모든 동문들이 절로 감탄했다.

또, 50년 전 도미해 워싱턴주에 오려 동문 거주하다가 은퇴 후 파입이 있는 보스턴으로 온 동문과 일본에 거주하다가 방문 연구원으로 이 지역에 온

동문 등 여러 동문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런 송년 파티에는 중바덴스 강사를 초빙해 요즘 인기 있는 강남스타일 춤을 배웠는데, 이런 춤을 처음 배운 동문들도 많이 접지 않음을 느끼면서 모두들 열심히 따라 배움과 탐방율이 가득했다.

강남스타일 이벤트를 기획한 장수인 부회장은 "다양한 세대가 모두 흔쾌히 동참해 강남스타일 댄스를 같이 춘 순간은 너무도 인상적이었고 좋게웠다.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세

안에 전혀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 준 동문들께 감사하며 이벤트를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 같은 동문들이라 서로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은 동문의 진행으로 테이블별 참여 퀴즈 등 다량하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모두들 웃음으로 물고 갔고, 마지막도 푸짐한 경품 추첨상도 나누어 풍성한 시간이 됐다. 특히 리얼의 동문 후원으로 마련한 iPad Mini와 삼성 Galaxy Tab 2의 추첨 때는 당첨자의 환호와 함께 모두들 신나는 긴장감을 맛보았다.

정선주 회장은 "행사 준비에 애는 임원들에게 감사하며, 내년 4월 봄 피크닉 때도 좋은 정중과 재미 있는 내용들을 준비할 것"이라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행사 안내를 비롯한 동창회 정보 및 행사 사진, 문의 사항 등은 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https://sites.google.com/site/snuame/> ***
 e/snuame@***
 5삼주(공대 84) 이재형(공대 91)



“Celebrate the Holiday Season with Us!”

We are open on CHRISTMAS DAY and NEW YEAR'S DAY!



Woo Lae Oak at Tyson's Corner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Tel(703)827-7300 Fax(703)827-7302
www.woola oak.com

대표 백행남(문리대 62)

의학 칼럼

신경블락을 이용한 통증치료법



조형기 (외대 86)
Anapla클리닉 원장

‘신경블락 치료법’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통증치료법은 운동치료나 물리치료 혹은 약물치료를 바꿔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비약물 치료법이다.

가장 큰 장점은 직접적이고 경미한 치료를 통해 ‘즉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통증종종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전문 수련을 받은 의사가 있어야 하며, 플로로소크리라는 절단 의약품도 필수적이다.

플로로소크리는 최근 개발된 장비로 혈장 X-ray 기능을 이용해 비교적 미세한 엑스레이만으로 내과적인 고상능 컴퓨터를 통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몸안 구멍을 통해 작은 구멍을 이용해 내시경으로 절단한다.

이미징 장비는 시행하던 전에는 어렵지만도 사용하지 않던 각종 통증치료 수기들이 영하 속에서 레이어로 유도되는 절단부기기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가능해져 시술이 정해지고, 크고 작은 절단 시술이 가능해져 시술의 부작용이나 여러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능이 뛰어난도 이미지와 의의를 제대로 볼때는 잘 모르며, 플로로소크리 역시 한남고급임이해는 부족하다. 기계 못지 않음은 오히려 사람의 능력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플로로소크리(즉서 플로라블)를 이용한 몸 밖에서 몸 속의 아픈 근근 원인이 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직접 보편이 주어진 가는 바늘을 이용하여 3차원영상으로 정밀하게 절단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소량의 절단약물을 주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남는 약물의 종류는 병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을 위해 장기간 작용하는 국소마취제(중간 및 긴)와, 원인이위에 염증이 의심된다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사한다.

시술 자체 밀리미터 단위를 따질만한 정밀하므로 예전과 같은 대량의 스테로이드는 필요치 않고 소량으로도 충분하다. 통증은 때때로 줄이는 대신 정확도로 승부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참고로 이미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최근 스프로트 신수술이 사용했다는 아나플릭 스테로이드라는 감지약물과는 전혀 다른 계층의 의약품이고 70%의 절단된 병은 것은 물론 사용상에 따른 안전성은 이미 검증된 약품이다. 때로 원인에 따라 다른 치료약물을 섞어 주입하기도 한다.

바로 모든 통증의 원인은 척추의 퇴행, 어깨 통증, 팔은 척추로 단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속속에는 통증의 원인이 될만한 곳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어렵다. 오죽하면 환자 100명마다 같아도 다른 통증 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통증치료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남음이 깊 것이다. 신경블락이라는 것은 그냥 중앙 이미지 부위되는 부위이 아닌, 즉 속은 절단시도도 표현되는 체내 신경을 이용해 체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회복이 빨라지거나 놓일거나 혹은 몸 속 사이에서 풀어나가 임팩트가 잘 일어나고 회복이 빠르게 치료효과를 무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이 아니라 수 10분 이내 결과 가 나타나나, 흔히 말하듯 통증과 같은 과에는 다른 한방의 K0 원칙을 널리 적용한다 시술이되는 치료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지 치료는 잘 된다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수술후 지 않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말은 쉽지지만 현실은 그쪽 노력치 않다. 예를 들어 운동부족, 물욕이 절절히되지 말며 배고파도 하지, 원인이 될만한 발목의 통증은 발가락을 모두 제거해도 주로 포인팅된 피스한 20군데가 넘을 경우엔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를 감별해내서 것이 기술이다.

참고로 벌레의 시골은 평등도 20%리터는 넘지 않는데도 다 시술할 수 있다. 또한 다 아픈 원인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원인이 되는 바늘도 포인팅된 통증이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왕의 몸값이라면 이정도는 돼야



김지영 (사대 69)
동창회보 편집위원 변호사

‘엄마와 하루만 댄(For One More Day)’라는 소설 기억하십니까. 현실이 나라에 떨어진 아들에게 하루의 담담한 생을 보여준 어머니, 사실은 8년 전이 어머니를 몰아가신 분이었고, 다음은 그 소설의 작가가 쓴 스톤즈 기사의 일화, Big inside. Big story. 마치 앨본(Mitch Albon)의 스톤즈 탐담 기사입니다. 그가 쓴 올 1월 25일자 기사입니다.

‘Mitch Albon: Mike Ilitch pays a king's ransom to land his slugger Prince Fielder.’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여기서 꼭 빼먹어야 할 표현은 ‘a king's ransom’의 뜻을 아

는 분은 그냥 세도나에 놀라게 세요. 세도나에 가면 ‘Kings Ransom’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뜻이 퍼뜩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골짜기 앞이 보세요. Mike Ilitch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 이름, Prince Fielder는 대단한 타자. To land, 여기서 land는 통사로 to catch or bring in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구에서 공을 때려 다, 그래서 slugger는 ‘타자’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 ‘a king's ransom’이라는 뜻이 대장간 같이 참피로, 기사를 읽으면 뜻이 확실해집니다.

‘You can't avoid the word. Big deal. Big name. Big contract. Big risk.’

‘Big is hardy a new adjective when it comes to Prince Fielder. Some of us remember him as an oversized school kid wandering around the Tigers' clubhouse in the early 1990s. He would sit by his dad Cecil's locker, eating the post-game food – a Prince on a throne – and the word we whispered then is the word we scream today.

Big. Only now it's not “big for his age,” it's big bat, big home runs, big RBIs and a really big contract. A nine-year deal in the vicinity of \$24 million that easily smashes the record for Detroit players and makes the 27-year-old slugger a focal point for the entire baseball nation. (January 25, 2012, Detroit Free Press)

27살이 넘는 선수로 9년 동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려 ‘이억천사백만 달러’, 곧 천이억. 그게 바로 ‘a king's ransom’의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왕의 몸값’,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이나 왕족이 살해되거나 납치되거나 잃어버린 물건이나 잃어버린 영토를 찾기 위해 몸값을 받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왕을 잡고 있다면 그 몸값이 엄청났겠지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아이마이런 큰 액수’라는 뜻으로, ‘a king's ransom’이라도 표현합니다.

가장 유명한 ‘왕의 몸값’ 이야기는 12세기 말 당시 영국-프랑스 왕위도 1세 이적이었습니다. 십자군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숭배당하던 왕이었는데 길에 떨어진 시체가 나왔던 요르단강에서 발견된 왕자였습니다. 1년이 넘게 포로로 있다가 당시 8년 마르코로 주고 풀려났습니다. 처음 요구한 몸값은 15만 마르크, 당시 영국 왕실의 3년치 수입이었고, 그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영국의 모든 시골에서 십자군으로 징발되었습니다. 당시 15만 마르크는 오늘날로 약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진짜 ‘king's ransom’, 엄청난 거다. ‘a king's ransom’의 뜻이 답시니까...

지게 된다. 이름해진 다는 말보다는 몸값이 아무런 대피처 없이만 남겨놓는 스톤즈의 몸값, 말기 오십이건 같은 몸값도 바로 MRI사건을 찍어 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확인되면 신경블락법을 통해 해준 환자들 이야기에서도 통증에서 해방되고 있는 이에게 어떤 처치 잘 어울릴 수 있겠는지를 물어 보았다.

참고로 이런 치료법은 오로지 신경블락법 전문으로 하는 통증클리닉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이다. 하다. 통증이 일어난다면 정말 심각한 통증클리닉은 정밀로 말하고 치료받은 환자분의 입소문에 의하면, 통증이 많지 않은 주된면의 치료 경험을 물어 보면의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요령이긴 요령이긴 하다.

하지만 아픈 다음에 의사들 찾아다니기에 앞서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로 통증과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 보인다.

만약에 대비해 믿을만한 의사들을 평소 만나고 있어두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의사들을 미리 알고 삼수족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경험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특수의학과 비전문 진자들 첨단 구급차이다.***



*원록 사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신 모델 플로로소크리 및 EO-9900의 실물 모습이다. **참고** X-ray 라는 기술을 이용해 시골의 어떤 곳을 구석구석 훑어다니는 삼사건으로 모니터링되어 있다.

원록 사진은 플로로소크리 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특수의학과 비전문 진자들 첨단 구급차이다.

104일 동안 5대륙 41개국의 여행기 <상>

처음 느껴본 월드 크루즈의 감동



이명성(상대 58)
Houston Fearless 76, Inc
Chairman

누가에게나 평생 한 번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사람이 따라 다르면 그 중의 하나가 세계일주다. 자신이 지극히 직접 보거나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두루 돌아보는 일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인생의 70을 넘어서 우리 부부(필자 73세, 아내 헬렌이 71세)에게도 항상 마음에 간직해왔던 일이 있었다. 바로 크루즈를 타고 전세계를 두루 돌아보는 것이었다.

살아면서 여러 번 크루즈 여행을 했다. 알래스카-지중해-중국-남극 등 많은 곳을 다녀보았다. 그러나 이번 여행도 이번에만 다녀 온 월드 크루즈의 감동을 넘어이제는 못했다.

▶**특별 41개국 관광** 우리 부부가 이번에 다녀 온 크루즈는 오주 시드니까지 출발해 5대륙 41개국을 104일 동안 다니는 여행이었다. 여행은 6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제1 세션은 시드니에서 시작해 다윈(오주), 싱가포르(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케냐(나이로비)이다. 동남아(인도)를 거쳐 두바이(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2 세션은 두바이를 기점으로 살랄라(오만), 락소(이집트), 아랍(요르단), 수에즈 운하, 카이로(이집트), 마비로노스(노르웨이), 이스탄불, 맨작코브(튀르키예), 아테네(그리스), 베니스(이탈리아), 카프리, 로마, 플로렌스(이탈리아), 칸노(프랑스), 마르세유(프랑스), 리스본(포르투갈), 파리(프랑스) 등 유럽 중심 관광으로 구성돼 있다.

제3 세션은 런던을 떠나 베르겐(노르웨이), 레이크(영국), 테이크라이(아일랜드), 웰리팩스를 거쳐 뉴욕(미국)에 도착한다.

제4 세션은 다시 뉴욕에서 출발해 캐나다 아일랜드의 세인트 피터스 아부바를 지나 파나마 운하를 보고 코스타리카의 폰타레나스를 지나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일정이다.

마지막 제5 세션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해 하와이 오펜하우, 하와이, 사모아의 파고파고, 오홀룬드, 베이 오와일랜드(뉴질랜드)를 둘러보고 최초 출발지였던 시드니로 돌아오는 대항정이다.

크루즈 탑승객 중에는 이 5개 세션 중 일부를 선택해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개인 여행에서 출발한 2천명 정도가 시드니에서 5세션을 모두 끝낸 여행객들은 800명 정도였다.

월드 크루즈의 비효율적인 객실을 예약하는 나에 따라 다른 달러(2인 기준)에 따라 다른 일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세계 각 도시의 내일을 여행 정례로 1만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일정도 3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70대 이상의 노년층이다. 평생 처음으로 다녀온

여행에도 계획이 필요한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여행해야 하는 데 철저한 준비는 당연한 것이다.

일기 해야 할 일은 크루즈를 예약하는 것. 단기 크루즈는 연중 여러 차례 있지만 월드 크루즈는 1년에 단 두 번 뿐이다. 특히 가장 인기가 높은 미니 스카프 객실은 2년 전에 이미 예약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평소에 잘 다니는 여행의 일만 남을 예약이 대부분이다. 특히 비싼 패키지를 선호해 좋은 객실부터 예약이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 우리 부부도 크루즈 여행을 결심하고 미니 스카프를 얻으려고 1년 전부터 예약을 알아왔지만 결국 먼저 한 예약자들로 인해 포기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여행을 계획하는 분이 있다면 일정에 한 번이라도 여행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와 기동 준비를 하라.

월드 크루즈의 경우엔 발코니, 테이블, 침실, 휴식실, 욕실, 샤워실까지 골고루 구비해 있어 전혀 불편이 없다.

104일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공간이라는 조금 비효율을 더 지출해달라는 좋은 예를 들 수 있다.

여행 전에 해야 할 준비를 조금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하기 어렵다.

다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열거하자면 일단은 현재의 주거지에 대한 유

한 문제와 편지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편 배달 중지 여부도 현상은 1개월여지만 가동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전이나 집적들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TV, 스피커 수가 거의 각종 서비스도 일상적인 요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조치를 미리 해두면 서비스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평상시 특별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약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약들은 중간 중간 갈 크루즈선박에서 내려 관광을 갈 경우에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환형에는 도중에 약이 필요할 때 약국을 찾아가 약을 사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크루즈 선박 안에 의사와 물리사가 있는지는 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아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또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가산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만한 사안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반반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출항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광경을 위해 배는 두 번 바다를 거으며 세계로 떠난다.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칼리파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 여행도 계획이 필요한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여행해야 하는 데 철저한 준비는 당연한 것이다.

일기 해야 할 일은 크루즈를 예약하는 것. 단기 크루즈는 연중 여러 차례 있지만 월드 크루즈는 1년에 단 두 번 뿐이다. 특히 가장 인기가 높은 미니 스카프 객실은 2년 전에 이미 예약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평소에 잘 다니는 여행의 일만 남을 예약이 대부분이다. 특히 비싼 패키지를 선호해 좋은 객실부터 예약이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 우리 부부도 크루즈 여행을 결심하고 미니 스카프를 얻으려고 1년 전부터 예약을 알아왔지만 결국 먼저 한 예약자들로 인해 포기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여행을 계획하는 분이 있다면 일정에 한 번이라도 여행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와 기동 준비를 하라.

월드 크루즈의 경우엔 발코니, 테이블, 침실, 휴식실, 욕실, 샤워실까지 골고루 구비해 있어 전혀 불편이 없다.

104일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공간이라는 조금 비효율을 더 지출해달라는 좋은 예를 들 수 있다.

여행 전에 해야 할 준비를 조금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하기 어렵다.

다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열거하자면 일단은 현재의 주거지에 대한 유

“누구나 평생 한 번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세계일주일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보거나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두루 돌아보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12주 여행의 흥취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에서 아내와 함께, 선장이 직접 환영회를 지내며 하는 회귀한 시드니에 올랐고 있다.

▶**월드 크루즈 여행** 104일 동안 41개국을 돌아오는 월드 크루즈 여행은 단기간 여행에는 결코 넘는 기간이지만 세계를 일주하는 모든 불-여행-기-을-가-을-사-재-를-모-두-두-루-경-험-할-수-있-는-데-대-한-데-는-매-일-아침-눈-을-뜨-린-전-리-다-하-는-데-로-인-상-이-깊-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산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각국을 일제강점기 후파해 세계 각국으로 두루 두루 여행을 하고 있다. 세계 지도 모양을 쓴 인공섬을 건설해 각국의 관광자원을 부르즈 칼리파의 초월적인 최고 하루 숙박비 3만4천 달러에 걸맞게 호화로운와 서비스의 극치를 보여 준다.

특히 두바이 건물에 상상-상-을-통-한-한-국-이-기-진-출-한-데-국-도-로-서-의-자-부-심-을-느-끼-고-있-다.

두바이는 석유로 돈을 벌고 관광-항공-부-자-중-심으로-활-용-을-추-진-하-는-대-표-적-인-중-동-의-도-시-이다.

▶**오만** 두바이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내려오면 조그만 나라 오만이다.

오만은 나라를 제외한 합산수입이 발달한 세계적 인명상을 얻고 있다. 합수에 관해서는 사람들이라는 좋은 환경 장소가 된다.

두바이에서 유럽을 가려면 오만-에-탈-사-하-리-아-라-비-아-를-거-쳐-수-에-즈-운-하-를-통-과-하-여-한-다.

▶**수에즈 운하** 1869년에 개통된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한다. 이 운하를 통과지 않으면 육로 혹은 아프리카를 우회해 지중해로 들어가는 수에즈 운하는 건설 당시 거대한 수에즈 운하의 건설이 차가 나지 않은 예상을 겪었고 있다.

이 운하를 통과하면 일단 배를 정박시킨 후 선장이 소형 배를 타고 수위해 지중해로 들어가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행료 지불은 반드시 선장이 하도록 한 것이 오래 전부터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이유도 유래했는지는 모르지만 운하의 통행료를 선장이 지불하는 것은 선장이 표시한 통행료에 수 곱해서 지불하게 되는데 <계속>



▶**싱가포르** 일단 싱가포르에서 경험,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던 도시 풍경을 잊을 수가 없었다.

싱가포르는 1950년대 이후 세계의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나라가 안정되고 부자가 활발해 도시 전체에 활기가 넘치고 싱가포르 항공도 다른 어느 항공보다도 생활로 발달했다.

특히 최근 부르즈칼리파는 세계의 최고층 건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수해 건축물 중 동남아시아의 최고층 건물로 꼽혔다. 이런 이유로 세계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한 싱가포르는 여전히 활기가 넘치는 도시라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810미터, 160층의 건물 부르즈칼리파가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칼리파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칼리파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교과 Home Coming Day 기행문<2>

가야의 유적 탐방



윤상대 (수의대 62) 뉴미디어센터 동창회 회장

지난 10월 21일 오후 Home Coming Day 행사 후 김은한(의대 60) 선생 댁에 함께 22:05길 가마를 타고 찾아가던 김해(의대 62) 회원이다. 이 글은 당시 김해 시청 인원인 이문수 선생(의과)과 현직에서 근무 중인 김승한(의대) 역사학과 동창회에 다들 쓰고 있다. 훌륭한 조상들을 길해 김해, 김해 와서, 인천 가서, 우리의 고친 동창회 사당에는 두루놓아 온 경향하는 마음에 삼가 같이 나누고 싶어 이에 전하는 바이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3 시간 쯤 걸릴 거리다. 김해 시청에서 안내를 나온 이문수 선생님과 함께 김해의 명승지인 삼경실 배운방을 잘 देख받고 사진찍기 위해 있는 김수로왕의 동을 찾았다.

▶김수로왕의 탄생: 김수로왕의 단상을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종국의 자손으로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주몽에게 태어난 할아버지 태어났다는 전설이다.

당시 가야의 지역은 아도간(故刀)·아도간(故刀) 등 9국이 주창이 되어 각기 부족을 두르고 있었다.

이들은 손강을 흐르며 구지 봉에 모여 세력을 모은다고 있었는데 화해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사람이 있느냐?” “여,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무지입니다.”

“황천에서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서 네와 나라를 세울것 하고 있기에 되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가서 흠을 파면되니 노래하기를 부수어라. 거북아, 비리들 내어 밀어라. 내일집 많으

기 가슴의 석막, 허황옥이 인연에서 가져와주고 하는 것으로 탐의 가마를 여자가 명으로 원할 수 있는데 전설이 있다. 둘의 심봉이 인도의 건디소 감 근처 돌과 같은 것이 증명했다고 한다.



면 구이 떡으리라” 라고 부도하면 대상을 맞이하여 환복 오락할 것이다.”

구간들이 구지(龜)가: 우리 나라 최초의 사자라고 국내 국본과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있다. 불발된 바 여러 조각에 붙어 있는 목에 색인 금이상이 나타내다. 그 안의 6개 황금 알이 화해 동자가 되었는데, 10일이 지나니 신강이 9척이 되었다. 처음 나타난 자를 ‘수로(水羅)’라 했고 그를 왕이 황으로 삼으니 그가 곧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로왕은 나라 이름을 ‘가야’라 했으니 시기 420년으로 가라코는 원도가 낙동강의 서쪽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낙동강 하구 남쪽에 신라(가야)라는 포괄한 영토를 이뤘다.

가야는 서기 562년 신라 진흥왕 때 이사부가 이르는 신라군에 병합될 때까지 500여년 동안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일본으로 많이 이주된,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발전된 국가였다고 보인다.

서기 400년 신라가 왜구 침략을 당하자 동맹국인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은 보기(步調) 5만을 보내 왜구를 격퇴한 다음 가야(가야)의 중앙까지 진격해 가야에 왕권을 부여하려 했다.

당시 가야 제국의 각 부족들은 우월을 가릴 수 없이 비속해서 강력한 주체 통일이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발전은 못했다. 이 약점으로 주창된다.

후에 가야 왕족의 후손들은 신라의 천년 귀족으로 편입되어 신라의 황창과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그 대표로 김유신-김춘추 형제는 삼한 통일에 주역이 되었으며, 김유신의 누이인 문명 부인은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왕비로 문무왕을 낳았다.

▶해탈사: 김유신 왕의 즉위 후 신라에 있던 16개의 부족과 5만여 명의 백부자를 이끌고 가야로 이주해와 14개의 단을 현결간이 ‘나라’라는 새로운 여자가 있으니 시기 484년, 485이 지나니 서기 484년 수로왕의 고대 패자가 설 해탈사를 보내게 되었다.

인도 건디소 감 근처 유마라리의 공주였던 허황옥이 오만한 장유



1 김수로왕의 명칭

왕자와 25명의 사공을 데리고 울릉도 30일 인도에서 출발해 울릉도 7월 30일 가야의 땅상도(현재 진해서 용왕동 바닷가)에 도착하니 신하들만 나와 있었다.

공주와 풍기를 “적지여 수로왕이 안아주고 자라들이 있가?” 하니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수로왕은 언덕 너머 명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공주가 신하들을 따라서 한 농사(당상대)에서 보이는 농실 단에 가서 농사와 같이 재단 을 차리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곧 수로왕이 기다리고 있는 명실에서 도착, 수로왕이 “그 먼 바닷길을 어찌 무사히 왔는가?” 하고 묻자 “과사의 석막 때문” 이니 대답하였다.

곧 천리 신령해 혼인을 한 게 사자 시제고 수로왕과 첫날 밤을 지내 후 황궁으로 들어갔다. 그는 천 년 전에도, 수로왕은 한 황후의 도착을 기념하여 첫날 밤을 지내 곧에 명실사를 지었다 한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터만 남아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야의 왕을 찾아온 허황 옥은 고구려의 왕과, 유민들은 유민신(인)으로 천태의 이름이 세 있던 흥부암으로 옮기어져 여승이 되었다는 설은 전설이 남아 있다. (황세바위와 여의 남자)

▶가야의 문화: 가야의 생활: 가야 인이던 원태의 김주인과 주태 왕의 신(冠) 나라가 명(기 229년) 후 북방에서 내려 온 북쪽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방의 부족들이 대개 주 배움을 이루었기 말하고 주장 이다. 가야의 문화나 유적들은 정치적으로 억제되고 또 많은 유적이 일일인들에 의해 실종된 것이 는 가라코 9대 유물 경지왕릉(수왕) 때의 인물로 황정승의 아들이다. 황정승과 친구 사이인 출 장은은 자기 아들을 낳으면 의령



1 수로왕릉으로 남문(南門) 이라고도 한다. 조선 선조 13년 명남 관찰사 허엄(홍길동진을 지은 허균의 부친)이 1560년 능을 크게 개축 하려고 인조 25년 능비를 세웠다. 고종 15년인 1878년 승선신의 화를 내리고 능비를 개축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지름 22미터 데 높이는 능비에 이르고 있다)

계를, 땅을 남으면 서로 결혼 소 기기로 약속했으나, 황정승의 집 안의 원락과 원정승은 딸인 여 의를 아들이라 거짓말을 했다. 여 의를 황제가 의에게 오직 수 는 늘 배가려 의에게 오직 수 는 시위를 제하되 의는 상대 줄기마 이용하여 위기를 넘겼다. 때, 이 시위를 한 것이 바로 황 세바위다.

여의가 자라면서 점점 여의의 모습을 피게 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황제가 거북내(해빈산)에서 백을 제자고 하려하는데 여의는 할 수 없게 되자 이마위를 밝히고 은은 결혼을 약속하였다. 그 후 신라의 전쟁에서 공을 세 운 황제가 왕의 명을 받아 유민 에게 공주와 결혼하게 되자 여의는 황 정승을 그리워하며 밤을 새 울며 울며 겨우 살아남았다.

▶가야의 문화: 가야의 생활: 가야 인이던 원태의 김주인과 주태 왕의 신(冠) 나라가 명(기 229년) 후 북방에서 내려 온 북쪽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방의 부족들이 대개 주 배움을 이루었기 말하고 주장 이다. 가야의 문화나 유적들은 정치적으로 억제되고 또 많은 유적이 일일인들에 의해 실종된 것이 는 가라코 9대 유물 경지왕릉(수왕) 때의 인물로 황정승의 아들이다. 황정승과 친구 사이인 출 장은은 자기 아들을 낳으면 의령

인 딸과작업으로 발견된 것으로 여의다. 그들의 명칭은 배운 박물관에서 보다는 것 같이 수산인과 농민이 주로 산업이었고, 교역 무역업에 발달해 일본 문화와 교류를 하였 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김해 근郊에서 생산되는 철을 이용한 철기 산업은 당시의 가장 으뜸이었고 민이었다.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가야 인들의 대표적이며 ‘우곡’ 이라는 시가를 들 수 있다. 우곡(송정년도 무성)은 대가야 사당으로 가실왕(葛城王)의 종용이 작사한 것으로 전해지는 12곡의 12곡(가야)을 만들고 있다. 이 악 기의 연주곡으로 12곡을 지었다. 서기 565년(현종 12년) 이래 여의 문, 제자와 문과 함께 사당에 세워 족자 진흥왕에게 알리지 국문(금문)을 구)에서 살게 배 려가 있었다.

▶가야의 문화: 가야의 생활: 가야 인이던 원태의 김주인과 주태 왕의 신(冠) 나라가 명(기 229년) 후 북방에서 내려 온 북쪽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방의 부족들이 대개 주 배움을 이루었기 말하고 주장 이다. 가야의 문화나 유적들은 정치적으로 억제되고 또 많은 유적이 일일인들에 의해 실종된 것이 는 가라코 9대 유물 경지왕릉(수왕) 때의 인물로 황정승의 아들이다. 황정승과 친구 사이인 출 장은은 자기 아들을 낳으면 의령

가야의 문화나 유적들은 정치적으로 억제되고 또 많은 유적이 일일인들에 의해 실종된 것이 는 가라코 9대 유물 경지왕릉(수왕) 때의 인물로 황정승의 아들이다. 황정승과 친구 사이인 출 장은은 자기 아들을 낳으면 의령

39년(이치만 명) 여해시간을 빼고 는 일간이 나타나 불교가 원한 했던 가야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수박 절할기에도 부족했다. 다만 이러한 기간이 우리의 역사 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기념일이 되면서, 또 흥황한 가야의 유적들을 보존 하는 마음으로 이름 붙이는 다.*** yoonssil1@naver.com

-김수로왕릉으로 들어가기는 정 문 앞에서 김은한(원곡) 선배와 함께, 송화문을 들어서서 운선 전이 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들꽃 3월 15일, 9월 15일 에 수 로왕 제사를 지낸다. 특히인 세 조 주만 린도 대사가 매년 화사 하며, 흥부대왕이라 불리는 수 로왕 12대손 김유신의 제사를 드 리면 무리이다. 매년 12일이 일의 김해 김해, 김해 하서, 인천 이다, 유림들의 참여객이 모인 다고 한다.

동문 비즈니스 탐방 <> EminiHaven CEO 김태환 (문리대 60 동문)

소자산이라도 '부의 힘'에 의해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Webinar를 통해 매일 아침 투자자들에게 증명해주는

"Messenger of Fortune"

'전도사' 또는 'Messenger'란 단어 주로 기독교계에서 비교된 용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을 지칭하며, 근간에 한국에서는 행복(Happiness)의 전도사가 출현하여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와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의 경우 어떤 형용사(Fortune)를 전파하는 분이 있어서 그가 왜 그 일을 하겠으며,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될지를 알자고 하고 본보 편집위원인 김태환 동문(문리대 60)을 LA의 Messenger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그의 전담을 알아봤다.

항상 좋은 글을 많이 게재해주셔서 많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찬사를 자주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매일같이 인터넷에서 읽어볼 수 있는 역동적인 글을 쓰시게 되었습니까?

"과연이 될 줄도 모르겠습다. 저는 항상 쓸라는 것을 좋아하며 지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걸쳐 5년간 중앙일보에 '조선도 재벌이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주 1회씩 200자 원고지 15매씩 한 자(One Sitting)에서 두 자씩 Fax로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뉴욕에 있어다가 LA로 와서 금년 초에 동행회 신년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정진수 편집위원님께서 어떻게 작성해보는지 소개해달라고 권고하시며 흔쾌히 응박하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나는 글은, 모든 제목을 지명받은 글들을 제외한 언제나 마감날을截止했을들 자람으로 여기다. 저 회원들은 저의 Opportunity(부(富)사기부족) 1년 선택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활회 지간의 사명을 선행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년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저 선행회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았단, 제 글들이 이미 어디서 발표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인연(Relationship: Guanxi)과 기회(Opportunity)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마찰과 실지처럼 따라다니니까."

"그럼 본문은 들어가서, 김태환 동문은 어떤 이유로 동행회 전도사(Messenger of Fortune)가 피커로 직접참여시키겠습니까? 어떤 서명갑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조국의 평화통일이 가장 과제라 생각하고, 대학원 의학과에도 진학하였으며, 경기 후배에 오 회교과학을 나온 이후서서 친구 정 권태원 신 장군님 태권인(상대의 물리대중)에 소개한 덕분에 남북통일 사색에서 회신 광담과 함께 임대주 대표인(상대의 물리대중)으로 포함되었으며 참석할 바 있었습다만, 동일이 '우리의 소망'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고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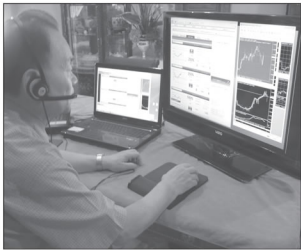
"미국에 오셔서 미군에 입대하여 데일리 컴퓨팅을 다시 받고(2nd Collage Degree) OMI 근무하면서 Harvard MBA Course를 수강하셨다는 것은 본보의 새로운 시리즈인 'My Journey to America'에 맨 처음 기고자되 되어서 2회에 걸쳐

와중으로써 그들의 은혜를 감으로 합니다. Spread 지의 목표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중받아야 하는 부의 분배(Distribution of Wealth)와 다른 것입니다."

"- 부의 분배방식으로 거론되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먼저 부자들의 재산은 란이(Robbing)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중세 영국에서 Robin Hood가 대표인 예시지요."

"- 우리나라에서도 이조시대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가난을 중립적 예컨대, 희생을 해서 부흥의 땅을 불사하여 소작농들이 혈투중에서 일해서 수확을 구분하는 일이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공화당 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 범을 정해서 가진 자(Super Rich)들에게 예컨대, 희생을 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그럼, 위에 설명하신 부의 분배지 감동문이 잠정하는 부의



1 김태환 동문이 매일 아침 뉴욕 증시 개장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보고 피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분들은 작게 차근차근 매일 꾸준히 해 나가면 '부의 힘' (Power of Compounding) 덕분에 큰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Webinar를 통해서 매일 아침 보도됩니다. 저의 회사 이름이 말하듯이 처음에는 e-Mini로 2010년 11월에 시작하였는데, 작년 11월부터는 Binary Option으로 투자방법을 바꾸었습니다. BB는 적은 금액(\$500)으로 시작할 수 있고, 배기기 쉬우며, 아침 일찍 약 30분 정도만(뉴욕시산 9시 30분부터) 하셔도 좋은 결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생활에는 '호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준'이 어떤 입학 사정관이던지, Harvard 대학 지명장과 인터뷰 부기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라나는 세태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어서 머슴의 앞날을 내다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년엔 저와 인터뷰하던 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명장생태들이 재미있었고도 학생을 잘 가르치고 배우려고 장점을 발굴한다고 안심시키지

"제 목표는 부의 확산(Spreading of Wealth)으로 부의 분배(Distribution of Wealth)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줌으로써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저 소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각자가 확실히 일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나니 그런 것은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Great Recession으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 그리고 외국까지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읽한 많은 어려운 사정가대 Time지에서 소개된 Lay-off 당하는 방법에 Baby Sitter하기 해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0대의 고등학생과 정충을 해야 한다는 한문제가 소개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많은 학부들의 도움을 받고도 사회적 약자(Socially Disadvantaged)들을 도

움으로써

"간단히 말하자면, 부의 분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가진 자의 부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잃은 자들에게를 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받는 쪽이 아무 혐의없이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의 확산은 파이(Pie) 조각을 다른 사람에겐 옮기는 것이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

들의 파이 조각을 크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분에게는 제가 방법을 시해해 보도록 하고 만족스러우면 같은 처지의 이웃에게 알리시고 그 분들도 스스로 파이를 늘어나가도록 하자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면, 또는 운동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계십니까?

"정확을 꼭 쫓지려는 절반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That's a very good question'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외가 황세경 좋은 내뱉지 비롯해서 말이 있듯이 자신이 적은

"귀중한 동문의 가치가 한 자리라도 더 손익이다. 왼쪽부터 김태환 동문, 부인 김순서, 자녀 Christine, 막내 아들 Brian, 장녀 Susan.

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기 위하여 여유 자금이 3천 달러 이상인 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자용으로 인간 자원을 에 Trading에서는 Auto-Trade" (AT)를 택하시던 습습니다. 저는 정철학을 공부해서

- 직업은 어떤 일이 됩니까? "이유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철학을 공부해서 때문에 Contribution Margin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데, 실제 생명화지선 고정비용(Fixed Cost)은 제외하고 가동비용 변동비용(Flexible Expenses)을 제외하고 잔액이 가장 좋은 영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의 거의 모든 Function(Software Development, Web Site, Webinar Operation, Internet, Telecommunication, Internal Credit Management, etc)을 Outsourcing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자사의 전문인력과 그들의 Expertise를 제 개인회사의 인력처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아마도 건강감사입니다. 어떻게 체력관리를 하시고, 운동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새벽같이 가서 30분씩 운동하며 관리하지 않거든요. 건강도, 체력도, 공부와 Heart Rate를 늘 살펴봅니다.

-"취미활동은? 그리고, 뛰우덤이 어떤 문화를 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까?"

"저는 많이 다룬 뉴욕 수도부(Du Soku)를 합니다. 지난 번 Denver로 가기 위해 LAX의 UAL 터미널에서 어떤 날은 보기에 "USA Today"를 다 보니까 수도부를 하시는 것을 보고도 안하십니까 거져도 좋다고 물어보고 그 후 주셔서 고맙다고 치사를 했는데 바로 그 때 옆에 있던 젊은이가 자기라 한 수 두 꼭장을 5-6 장 줘서 받게 주었습니다. 뛰우덤이라면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명구인 "두드러라, 열리리라"를 실행해서 수도부 게임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가 있을 때 남이 필요할 경우를 알아차리면 항상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것을 그 젊은이의 명구에서 같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도부도 풀었지만 그보다 수도부를 통해 배운 교훈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 나 더 보태서, "Be Compassionate to others" 즉 "사람이 시키는 것을 할 것"이라는 게 구리가 되지 말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조금 잘 간다고 스스로는 분량이 주뎀에 너무 많습니다."

김태환 동문은
▶1942년 3월 포항 출생 ▶1965년 도쿄 문리대 졸업 ▶1974년 3월 동요 ▶1983년 Harvard MBA ▶2010년 EminiHaven 창립 ▶저자 DALIO: Prescription for Lasting Peace. You Are Hired.



국교 동문동정

수상
◆김영애(사회55-59) 50 모교 사회학 명예교수>지난 10월 5일 경북 안동시 딸출중에서 열린 '동양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로운 안동인 수상.
◆潘基文(외교63-70) 유엔 사무총장>지난 10월 29일 한국인으로 제11회 서울평화상 수상.
◆鄭 輝(영문78-83) 통상그룹 회장>지난 10월 5일 제6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상공모단장 수상.
◆閔丙賢(SPARC 14기) 한밭대 교수>지난 9월 27일 대전MBC와 한화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2012 MBC 한빛대상 수상.



인사

◆李在奭(법학52-55) 55법학부도 행정자치위원회>지난 10월 19일 행정자치부 총동무장기회장에서 총회장이 취임.
◆林福源(회화56-60) 60행정자치부 고위공직자교육원>지난 30일 대한민국의학대협 대한민국의학대협 (구성 부분) 운영위원장 취임.
◆朴柱仙(영어교수60-64) 한국아동복지회 회장·사회봉사회장·분회 부회장>지난 10월 24일 한국아동보호는 화초로 말리어서 전국장애인 상담 센터 아로마드라 퍼추우 프로그램부터 다목적<Data> 작위 받음.
◆朴相희(의학67-73) 모교 경영회와 과학교육 교수>지난 10월 18-20일 제56차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
◆剛一澤(의학74-80) 모교 소아과학교육 교수>지난 10월 5일 제19차 대한소아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文大猷(의학76-82) 서울아산대병원 교수>지난 10월 27일 임기 2년의 대한정형외과 학회 취임.
◆李 軀(정치79-83) 모교 경제학부 교수>지난 10월 29일 유엔본부의 Com-

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위원에 위촉.
◆蘇振玉(경제86-90) 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부장·분노 논설위원>지난 10월 23일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선임.
◆李永烈(SPARC 4기) ERA코리아 그룹 회장>최근 사회 회차지공동총회 19회 연차 총회 개최기부자 모임 임원으로 선임.

행사
◆송환택(법학52-55)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원회 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0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공손기념논문발표회 개최.
◆李在奭(법학56-60) 세아물동 동문총회 회장>지난 10월 16-22일 아산대리대학 세제대 대동방학주간학술대회를 주관.
◆李在奭(법학56-60) 세아물동 동문총회 회장>지난 10월 16-22일 아산대리대학 세제대 대동방학주간학술대회를 주관.
◆李在奭(법학56-60) 세아물동 동문총회 회장>지난 10월 16-22일 아산대리대학 세제대 대동방학주간학술대회를 주관.

◆朴聖泰(의학58-64) 한국육상선수 협회 이사장·대한민국육상위원회 부위원장·체육부장·명예교수>지난 10월 2-5일 서울 올림픽의 전경에서 한국 육상위원회 주제를 30대 대한민국체육올림픽 개회식에서 인사.
◆李起泰(불어교육59-67) 스타인대내선대 대니주제권인>지난 10월 2-5일 서울 올림픽의 전경에서 한국 육상위원회 주제를 30대 대한민국체육올림픽 개회식에서 인사.
◆文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원>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신사동 갤러리에서 개최.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심가 명복을 빚다

◆김재우(정치45-49) 신영애 회장·본보 기문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高熙權(GLP 19기) 티엔에스개발 대표>지난 10월 16-17일 대만에 열린 '2012 서울아동복지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장비업협회(APSA) 국제회의에 참석.
◆이민숙(ASP 11기) 광복제기념사업회 이사>지난 11월 22일 경기도 용인시 광복제기념사업회에서 열린 제15회 광복제기념대회 기념행사 지원대표회 개최.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李光龍(광산60-64) 한국계 대한연구학회>지난 9월 20-26일 방글라데시 한림대학에서 열린 인도 뉴델리 18회차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교인업소록비·기타 후원금 (2012년 7월 1 - 12월 19일까지)

2012.7월 이후 동향외비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for the 2012.7 month onwards. Includes categories like Alaska, Arizona, California, Connecticut, Chicago, Florida, Maryland, Michigan, New Jersey, New York, and others.

광교

Table listing donors for Kwanggyo (광교) including Jeonnam, Jeonbuk, Jeonju, and others.

부흥 십시목

Table listing donors for Buheung 1000 (부흥 십시목) including California, Connecticut, Georgia, and others.

Maryland

Table listing donors for Maryland including Maryland, New Jersey, and others.

New York

Table listing donors for New York including New York, Virginia, and others.

Texas

Table listing donors for Texas including Texas, Washington DC, and others.

Heartland

Table listing donors for Heartland including Heartland, Illinois, and others.

Virginia

Table listing donors for Virginia including Virginia, Washington DC, and others.

New Jersey

Table listing donors for New Jersey including New Jersey, Florida, and others.

뉴욕

Table listing donors for New York including New York, New Jersey, and others.

동창회비 보내주시는 각 후원회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Form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including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donation details.

광교 디자인은 매월 초 보내주시고 snu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옥자 (818-225-8411)

보내실 곳: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58 e-Mail: snuausa@yahoo.com

지불방법 (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USA' ()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310-515-7888>로 () Check No. ()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USA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CA 남가주

연교/컨설팅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HNK Tech,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태(공대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60)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g@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860 Wilshire Blvd.#300.L, A, CA 9001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우 김광택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89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석 공인회계사
+ 신대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c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이강현 공인회계사
이강현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장준 공인회계사
장준(인문대 85)
Tel: (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Jung Mo Park & Co
박정민(문리대 66)
213-383-1390
3255 Wilshire Bl., #1700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6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ANKO Consulting Co.
광신홍 공인회계사
광신홍(사대 73)
213-380-3001
36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리태일러/보석/무역

한봉채인 (리태일러/상패)
황기훈(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5

세계보석
김경희(음대 59)
(213) 5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원철(지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Pacific Group USA(대형양상사)
하상현 (공대학원 90) 310-409-3300
18605 S. Laurel Park Dr., Rancho
Dominguez, CA 90220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2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기술/오디오/악업

LinkTV Media.
김원택(공대 65)
818-768-5494
P.O.Box 1069 San Valley, CA 91352

우주개발/기타 개발

JAY H. CHUNG, Ph.D.
President & CEO
TAVCO ENGINEERING, INC
Research, Design & Manufacture Aerospace System Manufacturer
장차훈(공대 64)
3874 Shook Drive P.O. Box 604
Garden, California 90248 USA
Telephone 714-622-2240 Fax 714-622-2242
E-Mail: jay@tavcoeng.com Web: www.tavcoeng.com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564-6171
465 N. Whisman Rd. 300 Mt. View
CA 94043

비영리법인

한미 교육 연구원
Korea-American Educational Center
사우현
한미 교육 연구원 대표
1974, Garden Ave. Suite 104
Los Angeles CA 90024
Tel: (213) 422-9299
Fax: (213) 422-9299
www.hanmi.org

교육/상담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3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서비스/개발자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tesia Blvd. Carson, CA 90746

Vermont Automobile
권기성(경림대학부 12)
(323) 757-17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678-473-4731
4132 Buford Hwy Doraville CA 30096

수의사/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대 66)
909-627-056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함상봉(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2012 '2012.7월 이후 동창회비' >
이시 계측 >
Phi Ipsilon Alpha 김영석(공76)
장준원(사60) 양용현(사92)
고병준(문65) 오진석(사56)
고영재(사83) 황승민(사57)
김규진(사66) 홍우진(사97)
김부혁(사93) 이규환(공56)
김정우(공55) 이성철(수59)
김주진(법54) 이상숙(사74)
김정호(사98) 이재준(사57)
서희원(사96) 권태호(사64)
사재민(공47) 정윤준(문40)
수준민(공64) 장승호(상61)
송재욱(사77) 제관순(문59)
윤영태(사56) 조영호(음)

조희원(공64) 박유미(사62)
주기복(수66) 신남수(공59)
지동현(수81) 신철원(문64)
최준호(공90) 유재원(공50)
이규환(사90) 이영재(사56)
이윤성(수81) 이준희()
신정일(공59) 이한우(공63)
이희록() 김명철(공90)
이은형(공57) 김석진(사55)
김기우(사90) 김승원(사53)
김민태(문54) 김민태(수59)
김한준(공56) 고광선(공57)
박정훈(상50) 최관현(공59)
박일영(문59)

박명일(농69) 송 준(공55)
양용현(공52) 유익민(공57)
유용진(사74) 윤정희(공57)
이규환(문62) 이강훈(사57)
이내림(사98) 이농림(사92)
이은형(공46) 이희원(사53)
장윤철(사54) 장윤철(사54)
황규석(상65) 최관현(공59)

Rocky Mountain 신정일(공59)
Texas 레노원(문48)
김관순(문40) 김기훈(사56)
김진민(공57) 김문태(사56)

Washington 박종수(공74)
양용현(수82) Washington DC 김명철(공90)
김석진(사55) 김승원(사53)
김민태(문54) 김한준(공56)
고광선(공57) 박정훈(상50)
박일영(문59)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건축/건설업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운동/유통/통관/임대계

SeAh Steel America, Inc.
유홍/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8,
Santa Fe Springs CA 90670

은행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3)
213-389-9000
3700 Wilshire Blvd.#1700 LA. CA 90010

의료/약국

Gilbert Pharmacy I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644

의료/치과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6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ISeonho Ha Prosthodontics
홍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내과/전문직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100 LA. CA 90004

정수안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민(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지(간호 70)
310-670-8070 310-569-8327
14035 Hawthorne Bl. LA. CA 90260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0)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캐미칼

LA Supply
전승택(사대 60)
(562)-404-1502
13700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KJ Choeh Chin
6&D Industrial Park, Inc.
10000 E. Western Avenue Suite 200
Houston, Texas 77036
www.kjchoehchin.com (상대 60)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정재우(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교회

리 캐나다 한인교회
육근원(공대 65)
818-70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식품/음식점

강남회관
Kang Nam Restaurant
323-937-1070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마포 주물럭 Maoo Korean BBQ
Restaurant (310)679-3622
143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66-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5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복 가주

상담/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대한 전 심리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
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바이더 등
과 동문자녀 특별일일 정지선(상대 68)
(510)224-078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9knet.com

수익자/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직/치과/전문직

박희래 한의원
임희래(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비영리법인 해양 크지 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MD,VA 워싱턴D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학현(경정대 84)
301-279-6966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공인외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5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96

재산관리

IPM Woath Management
이대영(법대 60)
(410) 777-8081 ext158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학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변호사/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상근(상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rpk #530
Annandale VA 22003

부동산/장계업

BPS Appraisal Company
박정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병원/치과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3626-6692
6201 Greenbelt Rd. Ste.10, College Park MD 20740
86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20877

GA 조지아

리태일과/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IL-IN 시카고

의료/내과/치과/전문직/치과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 이준우 치과**
이준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Suite #301
Niles, IL 60714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익자/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완상재(수의대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NJ-NY 뉴욕/뉴저지

건강
 II 안, 에이즈 II
 한인(사)대 73명생리강
 719-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줄기) 분리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공인연계사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정윤희(사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Kenneth K. Lee CPA
 이광필(사대 5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학대 64)
 (212) 760-1766 (917)647-0696
 38 W 32nd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Young Tai Choi E.A.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R New York NY 10016

리태양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연호사
 연봉영 변호사
 연봉영(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Tai Cho, Attorney at Law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914)782-0432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taicho7@aol.com

부동산/상업계
 Century 21 Infinity Realty
 이재현(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코스모 부동산
 이재혁(법대 60) 201-944-4949(O)
 201-784-3367(C)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Nothern Realty
 김은호(간호대 71)
 (718)229-4500, (917)686-3360
 45-22 Little Neck PKWY #3 Little Neck
 NY 11362. eunicekim RE@gmail.com

운송/유통/물건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의료/내과/연료의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9-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발종재 내과
 발종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세무/사업/법인
 Women In Need Center
 무지개의 꿈 여성 임시센터
 임문경(문리 82)
 P.O. Box 540329 Flushing NY 11354

NV 네바다
 의료/치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경준(치대 66)
 702-398-2828 702-687-7115
 5202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dental1v.com

OR 오레곤
 Flonox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9-5393
 P.O. 7418 Beaverton OR 97007

* 열린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동맹병원
 GREGORY F. JOE, D.V.M.
 MICHELLE CAMPBELL, V.M.D.
 JOHN PAWEL, V.M.D.
 GOTTSMAN AVIARY, INCORPORATED
 1512 GOTTSMAN BLVD.
 PHILADELPHIA, PA 19111
 NewPhone: (215) 742-8022
 Philadelphia: (215) 742-8022
 Email: gottsman@aviary.com
 aviary.com

주거복(수리대 68)

이즈미 일식서
 최홍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nothy Haas & Assoc.
 손재학(생물과대 77)
 494-342-0200
 500 Township Line Rd. Ste. 200 Blue Bell PA 19022

“웃으며 삼시다”

*** 종교**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서 어떤 도자기 그릇을 샀 것인지를 궁리하고 있었다. 마침 결재사 바라다 보면 노인이 남편을 살짝 웃고가니 말했다.
 “젊은이, 뭘만 샀는 데로 제일 비싼 걸로 사야 하죠. 4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본 사람의 충고요. 당신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터이니 부자할 가지가 충분하잖습니까?”

*** 노동강**
 힘줄이 온통을 넘긴 노동자이다. 보여 주는 여자마다 어머니가 되려를 놓기 때문이다. 그러자 권구가 충고를 했다.
 “너의 어머니를 꼭 달은 여자를 보여드리라.”
 과연! 외모, 말씨, 옷차림, 휘파람이 어머니와 흡사한 아가씨를 데려오자 어머니는 무척 좋아하셨다.
 하지만 또 실망! 결혼은 이번에도 이뤄

지지 않았다.
 “사려님의 마음에 들었다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응, 이번엔 아버지가 결사 반대를 하시네요.”

*** 성공한 부자**
 어느 날 아침 식탁 앞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자기가 증권에 투자한 결과가 좋지 않자면서 푸는 소리를 했다.
 “아내는 아내대로 요즘 새로 시작한 다이아몬드 가게도 안 된다면서 울음을 터뜨려 놓았다.
 “아내는 파기에도 여러 번 다이아몬드를 시도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 남편이 부들거리며 증권시세만을 보다가 아래를 힐끗 쳐다보아 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투자한 것치고 감원도 불어난 것은 당신한테 없어요.”

*** 여행사의 서비스**
 한 여행사에서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 비즈니스 맨들을 위해 요금 할인을 실시했다.
 부인과 함께 항공기를 탑승할 경우 부인의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 주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금 할인을 매우 이용했고, 몇 달 후에 여행사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새 가격으로 편지를 보냈다.
 “남편과의 결혼은 여성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주 저희 여행사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여행사는 부인을 로부터 온 답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무슨 여행이요?”

*** 한 개는 네게, 나머지는 아내**
 어느 아주머니가 푸른색 예쁜 날, 다섯살난 아들을 목욕시키고 웃을 벗기고 보니 고추가 뜨레 예들보다 너무도 작아 보였다.
 “크게 걱정을 하게 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바느질에 갔었다.
 “생선뼈에 아이를 고추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
 “대일 따뜻한 도넛 한 개씩을 먹이시면 될 겁니다.
 아주머니는 당황 도너츠 가게로 갔다.
 “따뜻한 도넛 다섯 개만 주세요.”
 그러자 열이 있던 아들이 물었다.
 “엄마, 한 개면 되는데 어찌요?”
 “아나, 한 개는 네 개지만 다섯 개는

아빠 줄게야.”
 그 아주머니의 대답이었다.

*** 자란 손 손상리**
 요시 새로 제정된 형벌이 ‘자란 손 손상리’ 만 게 있다는 데 종류와 형량이 아래와 같습니다.
 *노조 상인에게 채 골프 양치기나고 묻는 죄 : 징역 1년.
 *해장(海葬)에 살지 않거나고 묻는 죄 : 징역 3년.
 *자녀들이 모두 자음을 있는 대학에 갔는 죄 : 징역 5년.
 *아들 딸이 언제 결혼 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0년.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5년.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 무기징역 끝으로...
 *작달막한 키에 푸글 푸글, 평범한 60대 마누라 보고도 “배신 모델”로 한 거냐고 묻는 죄. 요거는 ‘사형’ 함 이랍니다.
 여러분, 각별히 주의 하십시오.

하지만 또 실망! 결혼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려님의 마음에 들었다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응, 이번엔 아버지가 결사 반대를 하시네요.”

원고를 ...

동문들의 지나 온 과거를 그리는 연재 글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김태환(문리대 60) 동문에 이어 권은희(석류영양학과 87) 교수와 '과거를 그리지 않는 삶'의 연재 '가 4세'로 글을 썼고 이번 10월호부터는 계절되지 못했다. 이는 동문들께서 여기에 마땅한 글을 아직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의 자서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 <편집주간>

'편집주간'

○ 편집주간은 동문 Couple Manager? = 모듬문으로부터 문의가 많이 왔다. '이달의 초대객'에 소개된 동문의 아들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서 그와나 함께 호인하고 함께 좀 더 자세한 Information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유를 물었다니 결혼 전 때문에 그였다는 것이었다. 마다의 Information을 물었다. 하비드 대

의대를 졸업하고 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중재를 잘 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그리니"라고 했더니 "잘만 되면 비디언이 서빙이라는 말도 있지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근 '이달의 초대객'에 소개된 동문 중 한 분의 자서는 스캔들 있는 동문은 '명가(名家)중의 명가'로 공인받고 있어 인터뷰하게 되면 이야기가 사실이다. ○ 편집고는 되도록 한 문도 동문으로부터

니 속편 말로 '킹카'아 니다. 부라 부라 당시자 본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한 분의 자서는 이미 결혼 했고, 또 한 분의 자서는 아직 미혼이지만 상태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차차, '비디언'이 회상에 들어가버리고 마는구나." 하지만 '이달의 초대객'에 소개된 동문은 '명가(名家)중의 명가'로 공인받고 있어 인터뷰하게 되면 이야기가 사실이다. ○ 편집고는 되도록 한 문도 동문으로부터

의 편지를 받았다. 자신의 글을 수정해서 보냈는데 최종 수정되지 않은 글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친(?)은 몇 개 달이 되었지만 글은 받은 것은 다섯차례 정도였다. 같은 글을 계속해서 수정해서 보냈는데 같은 글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동문 다섯명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이 글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동문 다섯명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이 글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동문 다섯명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이 글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량의 길은 글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친(?)은 몇 개 달이 되었지만 글은 받은 것은 다섯차례 정도였다. 같은 글을 계속해서 수정해서 보냈는데 같은 글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동문 다섯명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이 글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동문 다섯명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이 글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동문 다섯명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이 글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각 지부 회장단

Table with columns for region (e.g., 남가주, 북가주, 뉴욕) and role (회장, 자기회장, 부회장). Lists name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hapters.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김수성(의)·이병준(상)·오민석(법)·이용락(공)·오홍조(지)·이정택(공)·이건우(농)

영예회장 : 송윤성(문)

제11대 회장 : 김은중(상)

간기 회장 : 오인환(문)

공무취임 부회장 : 노영호(공)

집행부 임원

- 사무총장 : 심주영(상)
총무국장 : 박복자(음)
재무국장 : 장영선(상)
사무국장 : 김경희(공)
생외국장 : 이상대(농)
감 사 : 김재영(농)·박원철(농)
IT개발위원장 : 이홍도(공)
17개발원위원장 : 김영연(공)

회보 임원

- 발 행 인 : 김은중(상)
상고문 : 박석운(농)·김건진(문)
편집위원장 : 지민수(상)
편집주간 : 이기훈(문)
편집위원 : 조희준(의)·박양준(문)·김재원(농)·나철삼(문)·이홍도(공)·김지영(사)·김성수(의)·이복원(문)·김홍희(인)

논설위원

- 김일홍(CH)·김기태(LA)·조동준(LA)·최홍환(LA)·박순(WA,DC)·최길영(CH)·이형광(LA)·정홍택(PA)·윤상재(NE)·김광수(NY)·임승래(SF)·정석경(CH)·이석구(NY)·정요진(LA)

회칙위원회

- 위원장 : 서문인(공·PA)
위 원 : 한재원(의)·IL)·이민연(법)·TX)·윤상재(공·수)·NE)·김지영(사)·LA)·선용남(농)·NY)·함은성(법)·WA)

·사친-취재-기자작성-편집-디자인-이제훈 편집주간
anausalk1@gmail.com
·인쇄- Ana Times Printing, INC.
445 Hedra Cir.,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oytime.com

888 882 7400
888 882 7404

facebook.com/joytimefoods
twitter.com/joytimefoods
youtube.com/user/joytimefoods

Cake House

Main Store
Cake House-Galleria
3250 W. Olympic Blvd., #103,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66-0404

Olympic Blvd
West Century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리이사 김재정(82), 문리대 www.duo.co.kr

좋은 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수자가 인정하는 프라이빗 브랜드 : 규모와 인력,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배려형 커뮤니케이터 : 전문적이고 인성 있는 커뮤니케이터 소용원 만능녀가 도와드립니다.
- 듀오만의 핵심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핵심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회원안내 : 전국 회원과의 만남을 위한 공짜, 2인 1만원이 넘는 최정준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9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NY 201-242-0505

"2013년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Happy New Year!

손재욱 (가정대 77)

ATLANTA | MIAMI | NEW BRUNSWICK | PHILADELPHIA

- Master Planning
- Architecture
- Engineering
- Consulting
- Parking Studies
- Financial Analysis
- Restoration
- Sustainability Services
- Parking and Mixed-Use Design

PLANNING for CITIES and PEOPLE

Effective Parking Planning Sets the Stage for Success

필라델피아 본사 : 550 Township Line Roa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T. 484.342.0200 F. 484.342.0222 **TimHaahs** www.timhaahs.com

EMINIHAVEN.COM

I Came, I Did, I Earned



謹 賀 新 年

“Happy Holidays to You All!”

- 정기예금은 연 1 % 내외이고, Stock은 연내에 재정절벽(Fiscal Cliff) 타결을 보지못하면, 지난 2008년처럼 또 크게 폭락할 기미가 엿보입니다.
- 이 차체에 월 20%, 또는 그 이상의 소득을 원하십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Trade해주는 Auto-Trader를 활용하세요. \$3,000 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3,000이 없다고요? 염려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500로 당장 직접Trade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의 권위자이며, ‘행운의 전도사(Messenger of Fortune)’ 인 김태환(Teddy Kim)동문이 추천합니다.
- 가입하시려면, <http://www.cititrader.com/openaccount?campaign=88>

EMiniHaven.com 이 도와드립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주십시오.**

213-784-6960 (Tel) 213-784-6961 (Fax)

3700 Wilshire Blvd. Suite 950 LA, CA 90010

새해 Teddy Kim이 드리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 본 동창회보 24 페이지 기사 참조)

- 김태환(문리대 영문 60~65)
 - ▶경기중·고 56회
 - ▶Harvard MBA '83
 - ▶Merrill Lynch Financial Consultant
 - ▶EMiniHaven CEO
 - ▶동창회보 편집위원